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Influences of spaces requirements of Creation
Cluster to the network levels of it's artists

- Focused on the cases of Mullae Art village and Sindang Art Arcade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전공

이 승 훈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안 건 혁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전공
이 승 훈

이승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예술가들이 도시 내 특정지역에 자생적으로 집적한 창작클러스터들은 창조계급 집적에 따른 지역가치 상승이 자생적으로 실현된 사례로 주목 받아왔다. 그에 따라 창조도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정부들은 의도적으로 특정 시설에 예술가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Scott(1999)은 창작클러스터의 핵심적 자산을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국내 연구자 뿐 아니라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조성주체들도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의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실정이며,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성과 또한 미미하다. 이는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 시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 및 각 영향력의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 및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창작클러스터의 형성경위가 자생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상이한 공간적 조건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우선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존 언급된 예상영향요인들을 정리하였고,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의 대표사례로 문래창작촌을,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대표사례로 신당창작아케이드를 각각 선정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사례별 입주예술가 각 30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 및 예상영향요인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측정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예상영향요인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또한 각 사례의 공간이용현황 변

수와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성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사례의 입주예술가 총 18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 해당 사례가 지닌 공간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은 각종 일상활동을 다양한 공간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중첩되는 교류공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해당 창작클러스터를 ‘마을’ 또는 ‘촌’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조건 및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과 실제 네트워크 형성과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상관분석 및 인터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반면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예술가들의 활동은 주로 사적공간에서의 개인작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네트워크 형성을 매개할 수 있는 교류공간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공공주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의해 전체입주자간 서로 안면을 인식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분석결과 및 해석을 통해 향후 창작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시에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공간계획의 고려대상에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각종 일상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조건의 조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각종 일상적 활동들이 중첩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교류공간의 조성이 계획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현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시 공간계획은 창작활동 수용을 위한 시설조성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이 향후 심화된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공간계획 방법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단순 시설차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개념이, 내부 구성원간의 자생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전제된 ‘창조환경’(Creative Milieu)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창작클러스터, 사회적 네트워크, 창조도시, 문화 매개 도시재생
학 번 : 2010-23313

목 차

제 1장. 서론	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1.2. 연구의 범위	7
1.3. 연구의 흐름 및 방법	9
제 2장. 이론적 고찰	10
2.1. 창조도시론과 창작클러스터	10
2.1.1. 창조도시론과 문화예술	10
2.1.2.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등장배경 및 현황	13
2.2.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관련 논의	17
2.2.1. 네트워크 활성화의 중요성	17
2.2.2.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현황 관련 선행연구	19
2.2.3.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2.2.4. 연구의 차별성	22
제 3장.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비교사례연구	23
3.1. 사례연구의 틀	23
3.1.1. 사례연구의 흐름 및 방법	23
3.1.2. 비교대상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선정	24
3.2. 사례 대상지의 일반현황	26
3.2.1. 문래창작촌의 일반현황	26
3.2.2.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일반현황	28
3.3. 사례 대상지의 네트워크 활동현황	32
3.3.1. 문래창작촌의 네트워크 활동현황	32
3.3.2.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활동현황	36
3.4. 소결	38

제 4장.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40

4.1. 분석의 틀 40

4.1.1. 연구문제의 설정 40

4.1.2. 측정항목 설정 및 자료수집 방법 41

4.1.3. 분석방법 42

4.2. 사례집단별 설문응답결과 비교 44

4.2.1. 설문응답자의 속성 45

4.2.2. 사례집단별 단순 평균비교 46

4.2.3. 사례별 설문응답결과 차이의 유의미성 검정 51

4.3. 네트워크 수준과 영향요인 변수들 간 상관분석 54

4.3.1. 상관분석 항목의 설정 54

4.3.2. 사례별 상관분석 결과 56

4.4.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현황과 공간적 조건과의 관련성 인식 60

4.4.1. 인터뷰 조사의 틀 60

4.4.2. 인터뷰 조사 결과 61

제 5장. 결론 70

5.1. 연구의 결과 70

5.2. 향후 창작클러스터 계획시 시사점 73

5.3. 연구의 한계 74

표 목 차

[표 1] 백선훈, 라도삼의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업유형 구분	12
[표 2] 기존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중 네트워크 관련 문항 및 답변	18
[표 3] 선행연구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강조 언급	19
[표 4] 기존 언급된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의 예상영향요인	21
[표 5] 비교 사례연구의 틀	24
[표 6] 주요 서울시창작공간 조성사례의 개요	25
[표 7]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일반현황 비교	31
[표 8] 분석대상 창작클러스터 별 주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33
[표 9]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의 주요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	33
[표 10] 문래창작촌 내 자생적 교류공간 현황	34
[표 11]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36
[표 12]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공동사용공간	37
[표 13] 측정항목 및 설명	42
[표 14] 사례별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개인속성	44
[표 15] 창작클러스터 내 공동목표의식의 내용 언급정리	47
[표 16] 교류공간으로 이용한다고 응답된 개방공간 목록	49
[표 17] 네트워크 수준변수와 예상영향요인변수 측정치 평균비교	50
[표 18] 사례집단간 네트워크 관련 변수 t-검정 결과	51
[표 19] 사례집단간 예상영향요인 변수 t-검정결과	52
[표 20] 상관분석 항목	55
[표 21]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일반 예상영향요인 간 상관분석결과	56
[표 22]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공간이용관련 항목 간 상관분석결과	56
[표 23]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 간 상관분석결과	57
[표 24]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일반 예상영향요인 간 상관분석결과	57
[표 25]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공간이용관련 항목 간 상관분석결과	58
[표 26]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 간 상관분석결과	58
[표 27]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변수와 상관성이 유의한 항목들	59
[표 28] 사례별 인터뷰대상자들의 속성	61
[표 29] 사례별 인터뷰조사 응답자들의 주요 언급 비교	68

그림 목 차

[그림 1] '서울시 창작공간' 사례들의 분포	15
[그림 2] 전국 창작클러스터의 분포	16
[그림 3] 2008년 당시의 문래창작촌 거리와 작업실 내부	28
[그림 4] 문래창작촌의 인식적 범위와 문래예술공장의 위치	28
[그림 5] 개관 당시의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진입계단	30
[그림 6] 신당창작아케이드의 평면구성	30
[그림 7] 문래창작촌 내 교류공간 및 기타 공공공간현황	35
[그림 8]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공동사용공간	37
[그림 9] 개인별 기존 네트워크 규모	45
[그림 10] 개인별 신규 내부 네트워크의 규모	45
[그림 11] 개인별 평균 내부활동시간	46
[그림 12] 네트워크 활용정도 평가	46
[그림 13] 네트워크 형성의지 평가	46
[그림 14] 공동목표의식 절감여부 평가	46
[그림 15] 공간적 제약 평가 결과 평균	47
[그림 16] 시간적 제약 평가 결과 평균	47
[그림 17] 활동유형별 개인당 창작클러스터 내 연평균 활동일수	48
[그림 18] 개인별 창작클러스터 내 총 이용공간의 수	48
[그림 19] 개인별 이용 교류공간의 수	48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창조도시론은 2000년대 이후 리처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에 의해 주장된 이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쇠퇴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 매개 도시재생¹⁾의 개념과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다. 특히, 베이징의 798파산즈(大山子)사례 등, 예술가들의 창작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적된 창작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쇠퇴된 구도심 또는 폐 산업부지 등이 지역의 명소로 재생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예술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하여 현재는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문래창작촌이 대표적인 창작클러스터로 거론된다. 문래동 준공업지역 일대가 창작클러스터화 된 이후의 도시재생 효과로는 지역 주민 만족도 증가, 대외 인지도 상승, 차별화된 장소정체성 확립, 지역을 주제로 한 예술품 및 프로그램 증가, 창의적 기업활동 출현 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²⁾, 홍윤순(2012), 김연진(2010) 등은 해당 효과들의 주된 원동력을 내부 예술가들 간의 크고 작은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분석한다.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대되고 긴밀해짐에 따라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애착, 관심, 공동목표의식 등이 공유되고, 해당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의 발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은 창작클러스터의 핵심적 자산을 ‘문화생산 네트워크’와 그것이 지역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라고 보고 있는 스캇(Scott, A. J. 1999)의 관점과 일맥상통

-
- 1) 이는 아트 팩토리(Art Factory) 운동이라고도 불린다. 아트 팩토리 운동이란 ‘침체된 도시공간을 예술이나 문화와 연계하여 재활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미국 부록클린 워터프론트 지역 및 중국 베이징 파산즈(大山子) 등의 재활성화 사례 등이 자주 거론된다. 사업의 운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과 운동의 성격에 따라 미국에서는 ‘Artist Community’ ‘Art Colony’, ‘Art in Residency’ 등으로 구분한다.’(최준 외 1인, 2009 pp.555-558.).
 - 2) 문래창작촌의 도시재생효과에 관하여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2011), 오희택(2011), 김인선 외 3인(2010) 등은 주변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거주 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김연진(2010), 홍윤순(2012) 등은 지역의 대외인지도 상승을 통한 지역위상 고취효과를, 백선휘 외 1인(2008), 홍윤순(2012) 등은 차별화된 장소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경관 다양성에의 기여 효과를 제시하였다.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2011), 안태호(2010)은 각각 지역을 주제로 한 예술품 증가, 창의적 기업활동의 출현 등을 효과로 보고 있다.

한다.

한편, 자생적으로 형성된 경우와 달리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적 목표를 추구하며 계획적으로 조성한 창작클러스터의 사례들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자생적인 사례에 비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사례의 도시재생 효과 보고는 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⁴⁾. 이는 역으로 계획적인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수준이 자생적인 경우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창작클러스터 사례를 다룬 다수의 연구자들은 내부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⁵⁾, 최근 창작클러스터 사례 내부의 네트워크 특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김홍주 2011, 박세훈 외 3인 2011, 김홍주 외 1인 2012).

그러나 특정 지역에 의도적으로 조성한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들이 자생적인 경우의 사례와 견줄만한 네트워크 수준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다. 더욱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한 공공주체들이 ‘입주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된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⁶⁾, 입주예술가들 상당수 또한 창작클러스터의 입주이유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⁷⁾에도 불구하고 단순 집적유도의 시도 외에는,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

-
- 3) 지자체가 주도하여 조성한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15개의 사례가 확인된다. (박세훈 외 3인, 2011)
 - 4) 문지현(2011), 정희성(2011), 최준(2009) 등은 서울시창작공간 사례들에 대하여, 각각 문화생산 순환구조의 확립 미흡에 따라 지역 파급효과의 기대가 어려움, 창작공간의 외부적 역할 정립이 모호해 주민 연계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미흡함, 물리적 개선에 몰두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외부효과 달성이 미비함 등을 지적하고 있다.
 - 5) 김홍주 외 1인(2012), 김홍주(2011), 박세훈 외 3인(2011), 이순형(2010), 김연진(2010), 최준 외 1인(2009) 등
 - 6) 서울특별시 서울시창작공간의 취지 중 하나로 ‘예술가들의 지역공동체 구성 및 협업기회의 제공을 통한 도시 창조성 배양’을 명시하고 있다(정희선 2011, p280.). 서울시창작공간의 추진단장이었던 김윤환(2009) 또한 서울시창작공간 프로젝트는 “물리적인 건물조성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술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7) 이아름(2010), 허운선(2006), 황우자(2005) 등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김홍주(2011), 오희백(2011), 김연진(2010), 이순성(2010) 등은 자생적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지역 선택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기회임을 각각 설명한다.

시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 및 각 영향력의 검증에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 및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창작클러스터의 형성경위가 자생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상이한 공간적 조건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배경에 따라 확립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한 공간적 조건을 지닌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각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이 사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둘째,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한 요인, 특히 공간적 조건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실제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셋째, 향후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 시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례별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과 그 영향요인 규명을 통한 연구문제의 규명 및 시사점 도출로 한정한다. 다만, 단일 사례연구로는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타 사례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객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사례를 각각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각 창작클러스터 사례는 서울 시내 사례들 중 비교에 적합한 사례를 각각 선정하며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선정된 두 사례의 각 인식적·공식적 영역 내부로 한정한다. 논의의 시

점은 2012년을 현재로 하여 진행한다.

공간의 고유명칭, 기능,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창작 스튜디오’, ‘창작공간’, ‘창작레지던시’, ‘OO창작촌’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는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는 ‘문화클러스터’(박세훈 외 3인 2011, Stern and Seifert 2007), ‘창조문화클러스터’(문지현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문화’, ‘창조문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주체들의 광범위한 활동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에 앞서 모호성을 떨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립 예술가’들이 주체이며, 창작활동 부산물의 소비기능 보다는 ‘생산기능’에 초점을 맞춘 ‘창작’이라는 용어와, 협력 및 보완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집적한 상태를 일컫는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결합한 ‘창작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창작클러스터란, 예술가들의 개별 창작공간들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있어 상호간 협력 및 보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그 중 예술가들이 개별적인 이해에 따라 집적하여 촌을 이룬 경우를 자생적 창작클러스터로 지칭하며, 공공주체가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의 집적을 유도한 경우를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로 지칭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의 네트워크란 사회적 네트워크⁸⁾를 지칭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란 사회적 자본⁹⁾의 핵심적 측정지표¹⁰⁾로서 특정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 비공식적 관계망을 지칭한다. 창작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란 입주예술가들이 개인별로 각 창작 클러스터에서 형성하고 있는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망이라 정의한다. 또한 그 수준이란 해당 교류망의 양적 규모 및 교류빈도를 의미한다.

8) Brass, Galaskiewicz, & Greeve(2004)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인적, 그룹적, 조직적으로 분류하여 관계를 개인 간이나 그룹을 나타내는 연결망 형성이라고 설명하였다. Jones, Hesterly와 Borgatti(1997)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자원의 흐름이 교환이나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9)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라는 정의로 Bourdieu(1986)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의 촉진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의 분야 및 관점에 따라 정의와 활용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량을 지칭하며 주로 네트워크(Network), 규범(Norm), 신뢰(Trust) 등으로 측정되는 한편, 측정된 결과는 개별적 자산이 아닌 공공재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 즉 연결망의 양과 교류빈도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른 해당 지역사회의 유익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10) 임우석(2009)은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의 원천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자본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3. 연구의 흐름 및 방법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의 근간이론으로 주로 거론되는 창조도시론과 그와 관련한 개념들을 연구 주제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본다. 이후 창작클러스터와 네트워크의 각 개념 및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된 요인들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비교대상일 될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두 곳을 선정하고 비교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는 각 창작클러스터 사례지를 대상으로한 일반 현황조사와 네트워크 현황 조사로 나누어 이뤄지며, 문헌·관찰·인터뷰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다. 이후 사례연구 결과검토를 통해 연구문제 확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고찰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확립하고 각 사례지 내 네트워크 수준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자료구축을 위해, 창작클러스터 내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 및 예상영향요인 항목들을 변수화한 설문항목을 설정해 비교대상 창작클러스터별 입주예술가 30인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네트워크 수준과 예상영향요인 변수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동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예상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후 사례별로 공간이용현황이 실제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입주예술가들과의 인터뷰조사 및 분석결과와 연계한 해석을 통해 공간적 조건 및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과 네트워크 형성과정 간의 전후관계를 파악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종합 해석을 통해, 향후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 제고 방안 수립 시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 연구의 한계에 근거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창조도시론과 창작클러스터

2.1.1. 창조도시론과 문화예술

(1) 창조도시론의 기원과 목표

본격적으로 도시의 창조성에 대하여 언급한 학자는 인간의 창조성에 기반한 창조적 커뮤니티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제시한 1960년대 미국의 도시학자 제이콥스이다¹¹⁾. 이후 20세기 말엽에 이르러,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지식기반 자원, 문화컨텐츠 등이 주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부문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창조적 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¹²⁾.

2000년대 이후부터는 창조성 및 창조산업을 도시 경쟁력 제고 또는 쇠퇴지역의 재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재의 창조도시론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계급의 정의, 창조환경의 조성방법론 및 그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현재 거의 모든 창조도시 논의에서 인용되는 대표적인 두 학자로서 미국의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와 영국의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창조도시론의 보편적인 목표를 논의하기에 앞서 상기한 두 학자의 이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Florida 2002)는, ‘지역 경쟁력은 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을

11) 김현민 외 1인 2009, “도시의 창조적 산업과 인력이 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pp.323. 참조.

12) 그 시초는 1997년 영국의 문화미디어 체육부(DCMS)가 단순히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디자인, 영화, 음악, 공연예술 등 13개 업종을 창조산업군에 포함시켜 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 (구문모 2005,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4호, pp.200. 참조.)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정설을 전환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사람들(특정계급)의 집적이 지역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특정 사람들이란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을 보유한 창조계급¹³⁾을 일컬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 즉 ‘창조환경¹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랜드리(Landry 2002)는, ‘도시의 혁신은 도시 구성원 각각이 창조성을 배양하게끔 유도하는 과정이라 풀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창조환경은 사회활동, 문화예술활동, 상호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물리환경 개선의 형태로서 옛 산업구조물의 재활용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두 대표적인 창조도시 이론가들 간의 결정적 차이점은 창조계급 생성과정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플로리다는 창조환경의 조성을 외부 창조계급의 유입을 위한 사전단계로 보고 있는 반면, 랜드리는 기존자원(사람의 재능, 조직, 네트워크 등)의 통합 과정 자체가 잠재적 창조계급의 생성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은 창조적 자원을 수단으로 하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거시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의 영감, 정보, 자원 등이 원활히 공유되는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¹⁵⁾. 과거에는 동종산업 집적의 목표가 단순 규모경제 달성의 개념이었다. 반면 창조도시론은 창조계급 및 자원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있을 뿐 아니라, 주체간의 의사결정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안착되어 지속적인 창조성을 창출해내는 이른바 ‘창조환경’의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창조도시론은 오늘날 첨단·지식산업 종사자 등 창조계급의 범주에 속하는 부문들을 각각 클러스터화하여 지역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일련의 시도들과 관련연구들의 근간 이론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13) 플로리다(2002)는 IT산업·건축산업·첨단과학산업·교육산업·문화예술산업 등의 종사자를 ‘핵심창조계급’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법·의학·미학 등의 전문직업군 내 전문인들을 ‘창조적 전문가’로 구분하여 창조계급을 설명하고 있다.

14) 플로리다(2002)에 의하면 창조환경(creative milieu)이란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지역을 일컬으며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성(tolerance) 등이 반영된 3T 지수로 그 창조성 여부의 평가가 가능하다.

15) 이철호(2011)는 “플로리다와 랜드리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인력의 네트워크를 떠받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은 선명하게 공유하고 있다”(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집 제1호, pp.111. 참조.)고 해석한 바 있다.

(2) 창조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과 이를 통한 도시재생 논의

창조도시론이 창조환경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화 할 것을 장려하는 ‘핵심 창조계급’ 중 한 부문이, 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자이다. ‘문화’ 또는 ‘문화예술’이라는 부문은 최초로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로 분류된 산업부문이기도 하다¹⁶⁾.

한편, 문화적 활동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 매개 도시재생’ 등의 개념은 창조도시론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오동훈 외 1인(2007)은 ‘문화도시’ 개념을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문화를 매개로 세계 속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희택(2011)은 ‘문화 매개 도시재생’을 “문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쇠퇴한 도시를 살리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개념은 문화적 수단의 도입 주체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백선혜 외 1인(2008)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업사례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예술을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 유형이며, 둘째는 임대료 및 공간상의 이점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밀집한 ‘예술마을형’이고, 셋째는 공공주체의 유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예술형’이었다. 이 중 ‘예술마을형’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클러스터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표 1] 백선혜, 라도삼의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업유형 구분 (출처: 백선혜 외 1인,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pp38.)

구분	설명
마을만들기형	주민의 발의와 자체적인 노력으로 예술을 받아들여 지역만들기를 추진
예술마을형	임대료 및 공간상의 이점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밀집하여 마을을 형성
공공예술형	행정의 유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에 공공예술을 도입

16) 주12 참조.

2.1.2.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등장배경 및 현황

(1)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의 기원과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그러나 창작클러스터를 문화도시 개념 또는 창조도시론 이후에 대두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가들이 특정공간에 집적하여 특성화된 장소성을 이룬 사례는 희랍 및 로마시대부터 창작자들의 유동 필요성에 따라 군락을 이루며 형성되어 왔다¹⁷⁾. 이후 독립 예술가들이 도시 내 특정지역에 자생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은 세계 주요 대도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규모 커뮤니티를 이룬 자생적 창작클러스터로는 뉴욕의 미트패킹(Meat Packing)지구, 베이징의 798따산즈(大山子)지구 등이 있다.

국내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의 시초로는, 현재는 그 이름만 남아있으나, 서정주 시인, 황순원 작가의 집필지로 유명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예술인 마을이나, 은평구 구과발의 기자촌, 서대문구 홍은동의 문화촌 등, 1960년대 서울 시내의 몇몇 사례들을 들 수 있다¹⁸⁾. 이후 대안적 예술운동을 추구하던 예술가들이 1990년 초부터 안성을 터전으로 예술가 마을을 이루었고,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아 서울 근교인 양평의 서종면이나 일산의 구산동과 상석동 등에도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창작과 주거를 겸하는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집단창작촌’이라 칭하기도 하였다¹⁹⁾. 이후 서울시내 예술가 집적지역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으로의 집적과 지가상승에 따른 집단 이전의 순환, 즉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Cultural Gentrification)현상²⁰⁾을 보이며, 그 대표지역이 변경되어 왔다. 현재는 2000년대부터 철재상가 밀집지역 내 공실들에 예술가들이 집적하기

17) 오성희 2002, “아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3. 참조.

18) 김연진 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 형성 연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6. 참조.

19) 바람부는 연구소 2006, “경기지역 예술가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 pp.9. 참조

20)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과학용어로서, “도시의 확산에 따라 도심에 생성된 노동자들의 주거지인 슬럼(Slum)이 정비를 통해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Cultural Gentrification)이다 (김연진, 위와 같은 글, pp.62. 참조.). 즉 기존에 집적한 예술가들의 활동이 해당 지역의 명소화를 불러일으켜 고급화된 상업지구로 변모하는 동안 정작 예술가들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이전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이다. 뉴욕(New York)의 소호(SOHO)지역, 서울의 홍대지역 등을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고도화 된 대표적 상업지구로 볼 수 있다.

시작해, 약 200여명의 개별 창작실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준공업지역 일부지역 즉 문래창작촌²¹⁾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기한 자생적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은, 도심공동화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한 20세기 중후반부터,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도시의 명소로 부상시킨 사례로 거론되며 대안적인 도시재생 현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²²⁾. 이후 창조도시론이 확산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창조계급의 집적에 따른 지역가치 상승의 개념이 실제로 실현된 사례들로 거론되며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여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국내외 도시들은 기능을 다한 구도심 혹은 폐산업부지 등에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의 밀집을 유도하는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구성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2)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기원과 목표의 변천

한편, 공공주체가 조성한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기원은 1663년 프랑스의 프리드 롬(Prix de Rome)장학금 제도로 보여 진다²³⁾. 이후, 1960~70년대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예술가 복지차원 및 사회공익차원에서 각종 예술가 창작실 제공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²⁴⁾. 국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시초는 민간에서 1995년 실행한, 경기도 파주의 하계마을로 볼 수 있다²⁵⁾. 이후 1997년 문예진흥원이 충남 논산과 강화에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 및 운영한 것을 기점으로,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이 각종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²⁶⁾.

21) 문래동 준공업지역 내 예술가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을 가리켜, 문래예술촌, 문래예술공단, 문래특성화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래창작촌이라는 지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문래창작촌을 비롯한 이상의 지명들은 '문래예술공장'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문래예술공장은 서울시 창작공간의 일환으로 문래창작촌 인근에 조성된 예술창작 지원기관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22) 에반스(Evans, G & Shaw, P 2004)는 문화 매개 도시재생을 3가지로 유형화 하며, 자생적 클러스터 사례들을 '문화와 도시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 즉 문화예술이 도시재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유형으로 분류했다.

23) 박신의 2008, "예술가 해외거주 프로그램의 확산과 진화 : 창조도시 구도에서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까지", '미술이론과 현장', 제6호, 학교재, pp.125. 참조.

24) 이아름 2010, "공동창작공간의 클러스터적 네트워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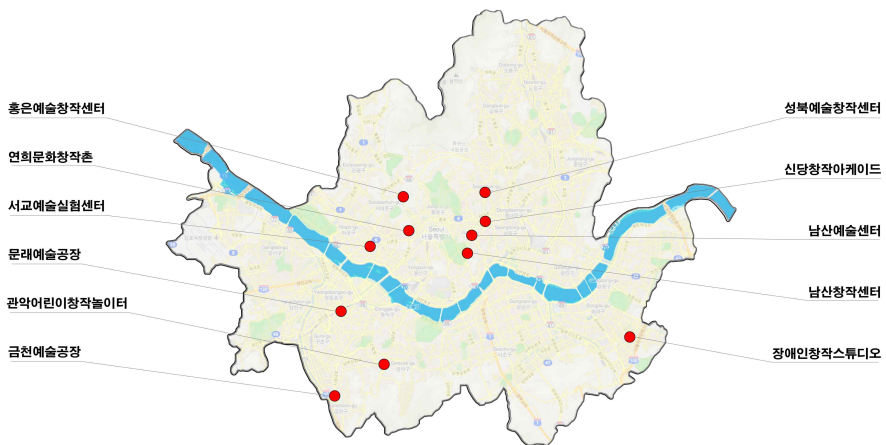
25) 황우자,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5. 참조.

26) 이아름, 위와 같은 글, p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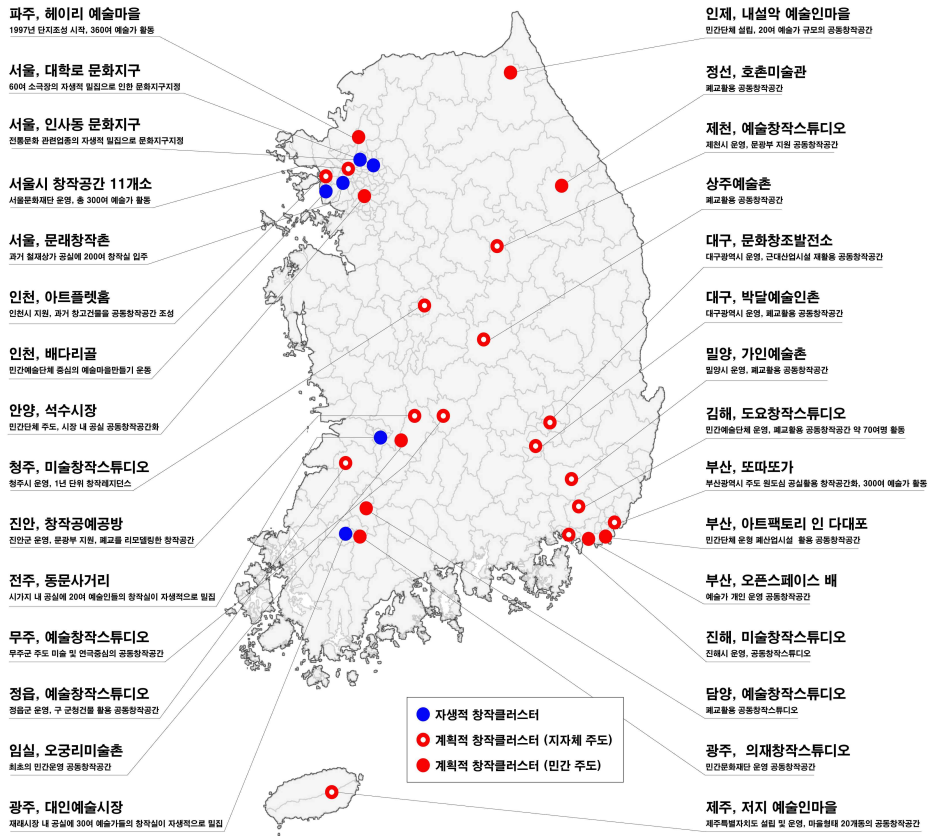
이후,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개념이 창조도시론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는,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들이 유럽, 미주, 일본 등의 대도시들을 포함한 각처에서 추진되기에 이른다. 즉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조성목표는 과거 단순히 예술가 대상 복지차원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중반이후 사회공익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창조도시론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부터는 도시재생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으로 한층 더 확대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창동스튜디오, 고양스튜디오, 등 각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 창작클러스터들이 출연하였으며, 이후 2008년 서울시의 ‘아트팩토리 도심재쟁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서울시 창작공간’ 사업, 2009년 시작된 부산 ‘포따포가’ 조성사업, 2010년 시작된 인천 ‘아트플랫폼’ 사업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보다 전면적으로 내세운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들이 등장하여 왔다.

박세훈 외 3인(2011)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등을 목표로 하며 주도한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전역에 15개 사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창작공간’ 사례들의 분포



[그림 2] 전국 창작클러스터의 분포
(박세훈 외 3인, 2011의 연구보고서 pp.61.의 삽화를 재편집)

2.2.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관련 논의

2.2.1.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활성화의 중요성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들은 예술가들과의 활성화된 상호작용 및 협력을 장려하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창조도시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창조도시론가들은 지역 창조성 배양을 위한 창조환경의 조건으로, 내부 인적구성원 간의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공통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²⁷⁾.

한편, 창조도시론이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의 목적이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위계로 기술되고 있다면, 실제 창작클러스터 사례를 다룬 상당수의 연구들은 각각 내부 입주예술가와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거론하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한다.

우선 내부 입주예술가의 관점에서 수행된 실제 창작클러스터 대상 사례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작클러스터 입주 예술가들의 주요한 이주지역 선택요인이 (저렴한 임대료 등 복지관련 이유를 제외하면) 타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가능성을 밝히고 있다(표2 참조). 이에 대해 이아름(2010)은 창작클러스터(공동창작공간)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창작기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며, 창작클러스터가 구축해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활성화된 네트워크 기반을 내세운다.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2011) 역시 입주 예술가의 관점에서 창작클러스터(창작촌)란 “예술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작업을 생산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으로서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랜드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창조환경은 상호 자극을 주고 받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분야의 종사자들과도 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어떤 가치보다 내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상오 역 2005, pp.201-202. 참조.)라고 기술했다.

[표 2] 기존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중 네트워크 관련 문항 및 답변

저자	설문 · 인터뷰 대상	네트워크관련 문항	네트워크 관련 응답
이아름 (2010)	국내 6개 창작클러스터 입주 예술가 대상 설문	창작클러스터의 의미	다응답 2순위 '교류를 통해 자극을 줄 수 있는 곳'
허윤선 (2006)	국내 6개 창작클러스터의 운영자 대상 설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응답자 전원 '필요하다'고 응답
황우자 (2005)	국내 4개 창작클러스터 입주예술가 대상 설문	해당 시설에의 입주 동기	다응답 2순위: '다른 작가와의 교류를 위해서'
김홍주 (2011)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설문	문래창작촌의 좋은 점	다응답 2순위 : '예술가들과의 다양한 교류기회'
오희택 (2011)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설문	문래창작촌의 입주 이유	다응답 3순위: '다른 예술가와의 교류'
김연진 (2010)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인터뷰	문래창작촌의 형성 원인	다양한 예술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적합한 장소적 특성
이순성 (2010)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설문	문래창작촌의 입주 이유	다응답 2순위: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가 용이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효과 차원에서 창작클러스터를 조명한 연구들로서, 대부분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실효성에 관한 관점으로 수행되었으며 창작클러스터 내부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도시재생효과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표3 참조). 박세훈 외 3인(2011)은 창작클러스터(문화클러스터) 내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홍주 외 1인(2012), 김홍주(2011), 이순성(2010), 김연진(2010), 최준 외 1인(2009) 등도 유사한 관점에서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한다. 특히 홍윤숙은 문래창작촌 사례가 특유의 장소정체성으로 서울 도시환경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동력을 문래창작촌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고 있다²⁸⁾. Scott(1999), Serifert 외 2인(2005), Grams 외 1인(2003), Markusen 외 1인(2006) 등 또한 예술가들의 개인적 활동보다는, 지리적 인접과 활발한 교류기반이 전제된 공동체 활동이 해당지역에 다양한 사회 ·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⁹⁾.

28) 각자가 주도자이자 참여자로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개인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구현하여 지역재생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문화방송사 등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까지 창출해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9) Serifert 외 2인(2005)은 펜실베이니아의 예술프로젝트(SIAP: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를 대상으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예술가들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Gram 외 1인(2003), Markusen 외 1인(2006)은 각각 예술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증진, 지역상품의 생산 및 분배가치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표 3] 선행연구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강조 언급

저자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활성화 강조 언급
홍윤숙 (2012)	문래창작촌의 장소정체성 및 그에 따른 외부효과의 원동력은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임.
박세훈 외 3인 (2011)	창작클러스터(문화클러스터)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남.
김홍주 (2011)	창작클러스터(창작촌)가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등 실제 창조 과정과 그에 관한 소프트한 측면을 주목해야 함.
이순성 (2010)	문화 매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시, 관련 예술가들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및 교류의 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함.
김연진 (2010)	문래창작촌의 장소성 지속을 위하여는 해당공간의 근본인 예술가간의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고려가 필요함.
최준 외 1인 (2009)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지역의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네트워크를 간과해선 안 됨.
Serifert 외 2인 (2005)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증진 프로그램이 예술가들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Scott, A. J. (1999)	창작클러스터의 핵심적 자산은 '문화생산 네트워크'와 그것이 지역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임.
Grams 외 1인 (2003)	지리적으로 밀집한 예술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Markusen 외 1인 (2006)	지리적으로 밀집한 예술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지역상품의 개발 및 분배까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종합해보면 창작클러스터 내부 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창조도시론이 지역가치 상승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창조환경’의 전제조건이며,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기능 향상을 위한 조건의 차원 뿐 아니라, 도시분야의 관심사인 도시재생 효과를 위한 조건의 차원으로도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현황 관련 선행연구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실제 창작클러스터 사례 내부의 네트워크 특성구명을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한 실증연구들이 최근 수행된 바 있다.

김홍주(2011)는 문래창작촌 입주 예술가 35인을 대상으로 각자가 2010년 한 해 동안 교류한 바 있는 다른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래창작촌 내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는 무경계적

있다. (이상 김홍주 외 1인 2012, pp.185-186.에서 재인용.)

속성, 내부 구심력 위주 성향, 비 상업적 성향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박세훈 외 3인(2011)은 부산 ‘또따또가 원도심 창작공간’과, 광주의 ‘대인에술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역시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사례 모두 내부 구심력 위주 성향을 띠는 특성이 두드러졌으나, 평균입주기간이 길고 입주선택이 자유로운 대인예술시장의 경우가 더욱 높은 공동체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홍주 외 1인(2012)은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인 문래창작촌과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인 부산 또따또가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각 내부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문래창작촌의 교류빈도와 외부활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예술가의 다양성, 내부 구심력 등 또한 더욱 높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각각 입주예술가와 운영사무국으로서 자생적·계획적 차이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2.2.3. 창작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트워크 현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 창작클러스터 사례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다룬 연구자들은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각기 다른 접근방식에 따른 해석 또는 주장으로 언급하고 있다.

박세훈 외 3인(2011)은 부산 또따또가와 광주 대인시장 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후자의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대상 예술가들의 입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연진(2010)은 문래창작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문래동 예술가 공동체의 규모가 확대된 이유를, 입주한 예술가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끊

임없이 새로운 예술가들의 유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체적 네트워크가 긴밀해져 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재개발 압박으로부터 문래창작촌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의식’과 그에 따른 ‘네트워크 형성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아름(2010)은 창작클러스터(공동창작공간)가 입주 예술가들간의 원활한 상호보완 체계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창작활동, 즉 활동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기된 영향요인들이 주로 개인적 변수에 관한 것이라면, 몽고메리(Mongomery 2003)는 창작클러스터(Cultural Quaters) 내의 공간적인 조건이 인적자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몽고메리는 서구의 성공적인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에 관한 문헌자료들을 종합하여 활동·공간·의의 라는 틀에서 해석하였는데, 결국 바람직한 창작클러스터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공간적 조건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입주예술가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개인적 변수 이전에 해당 창작클러스터 자체의 변수, 그 중에서도 공간적 조건에 있을 수 있다는 견해라고 볼 수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간적 조건은 다양한 토지 및 공간이용, 공공공간의 높은 수준의 양과 질 등이다.

[표 4] 기존 언급된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의 예상영향요인

예상영향요인		출처
개인변수	예술가들의 입주기간	박세훈 외 3인(2011)
	활동자율성	이아름(2010)
	기존 인적 네트워크 기반	김연진(2010)
	네트워크 의식	
		공동목표의식
공간적 조건	다양한 내부 공간이용	Mongomery(2003)
	공공공간의 양과 질	

2.2.4. 연구의 차별성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기능 향상 뿐 아니라 도시재생 등의 외부효과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라 수행된, 창작클러스터 사례의 네트워크 현황 관련 선행연구들은 모두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준용하여 각 사례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대상 창작클러스터 내에 기형성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의 틀 내에서 설명하는 데에 그 의의가 국한되어 있어,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따라서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정책적 방향성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 즉 내부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문래창작촌 등 특정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몇몇 선행연구들은 ‘입주기간’,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형성의 지 및 공동목표의식 존재여부’, ‘활동자율성’ 등의 개인변수와 더불어 각 사례 자체의 공간적 조건과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공간이용의 다양성과 교류공간의 활성화 여부 등) 등이 내부 구성원들의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각각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논의된 예상영향요인들은 각기 상이한 연구주제 및 접근방식에 따라 해석된 결과들로서, 해당 요인들을 고정된 사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유효한 영향요인을 도출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쇠퇴지구의 개선과 관련한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의 각 네트워크 수준 비교와 함께, 사례별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과 예상영향요인들, 특히 사례 자체가 지닌 공간적 조건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여 향후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제 3장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비교 사례연구

3.1. 사례연구의 틀

3.1.1. 사례연구의 흐름 및 방법

분석대상 창작클러스터들의 내부 네트워크 수준과 그 영향요인의 실증분석에 앞서,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와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대표사례 각 한 곳을 선정하여 비교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는 사례지별 일반 현황과 네트워크 현황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현황조사는 관련 연구문헌, 정책보고서, 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과 관찰조사 결과의 종합을 통해 각 창작클러스터 사례별 형성경위, 공간현황, 운영현황 등이 조사된다.

네트워크 현황조사는 사례별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현황, 교류공간 이용현황 등이 인터뷰 및 관찰조사를 통해 각각 조사된다. 여기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란, 내부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주체에 의해 기획되어 고유 명칭을 부여받은 행사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이란 창작클러스터 내 복수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예술활동을 의미한다.

이후 결과검토를 통해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의 개황과 선행연구들에 의해 기존 언급된 예상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론을 도출해 네트워크 수준 및 영향요인 실증분석의 연구문제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표 5] 비교 사례연구의 틀

구분	조사항목 / 세부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일반 현황	창작클러스터 형성배경	창작클러스터 형성 이전 공간이용 및 형성경위	문헌조사 및 관찰조사
	공간현황	창작실 및 기타 공간 분포, 형태, 현황	
	운영현황	창작클러스터의 운영 현황	
네트 워크 활동 현황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계획 및 실행중인 프로그램 현황	인터뷰 및 관 찰조사
	지역사회 대상 공공예술활동 현황	복수의 예술가들이 해당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획 및 시행하는 예술활동 현황	
	교류공간 현황	입주 예술가들이 교류시 주로 이용하는 공간현황	

3.1.2. 비교대상 창작클러스터의 선정

연구대상 자생적 창작클러스터 사례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준공업지역 일부인 문래창작촌을 선정했다. 문래창작촌은 입주예술가의 규모, 쇠퇴지구의 개선과 관련한 창작클러스터 논의를 다룬 각 분야의 각종 언론, 연구 등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의 대표적인 창작클러스터 사례로 볼 수 있다.

문래창작촌의 비교대상이 될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사례의 선정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창작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인 ‘서울시 창작공간’ 프로젝트의 배경 및 현황을 검토했다.

2007년부터 서울시는 ‘컬처노믹스 창의문화도시’를 위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아트팩토리 도심재생프로젝트’³⁰⁾를 발표하였고, ‘서울시 창작공간’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기존의 예술가 대상 공간지원 사업들이 창작지원 · 거주지원 등 부분적 역할만을 담당했던 한계를 보완해, 창작 · 예술가간 연계 · 주민향유 기능 등 창작클러스터의 포괄적 기능을 집적한 개념으로 구상되었으

30) 그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이 폐기됨에 따라 발생한 유휴공간들을 예술가들의 창작 ·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의 재활용은 물론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김윤환,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과제”, 월간 Art, 2009년, 2월호 참조.)

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목표를 보다 전면적으로 내세운 방향으로 추진되었다³¹⁾. 그에 따라 서울시내의 여러 유휴공간들이 확보되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클러스터들로 조성되었다.

2012년 현재 시내 각처에 조성완료 및 운영 중인 서울시창작공간의 조성 사례는 총 11개소이며 주요 사례의 현황은 표6과 같다.

[표 6] 주요 서울시창작공간 조성사례의 개요 (출처 :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

창작공간명	위치	조성방법	개관시기	창작실수	부대시설
서교예술실험센터	마포구 서교동	옛 서교동사무소 리모델링	09년,6월	5실	갤러리, 다목적 홀, 다방 등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독산동	폐 인쇄공장 인수 후 리모델링	09년,8월	19실	대형작업공간, 다목적 홀, 등
신당창작아케이드	중구 황학동	재래시장 지하부의 폐 점포 리모델링	09년,10월	35실	전시실, 공동작업장, 공동휴게실 등
연희문화창작촌	서대문구 연희동	옛 시사편찬위원회 4개동 리모델링	09년,11월	33실	미디어랩, 세미나실 등
문래예술공장	영등포구 문래동	옛 철재상가 부지에 신축	10년,1월	-	대형작업공간, 상영관, 갤러리, 세미나실 등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구 종암동	옛 성북구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10년,4월	8실	까페, 연구기획실, 음악실, 갤러리
홍은예술창작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부지에 신축	11년,5월	10실	공용창작실, 연습실

그중 쇠퇴지구의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적 목표가 가장 구체화된 사례로는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중구 황학동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지하부의 폐점포를 개조하여 40여실의 창작실 및 부대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이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심지역의 입지를 살려 서울시 창작공간 사례 중 가장 많은 창작실³²⁾(창작실 35실, 약 50여명 입주)이 구비되어 있으며, 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있다.

31) 서울시창작공간의 추진당시 추진단장이었던 김윤환(2009)에 따르면 서울시창작공간 프로젝트는 “2007년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 능력을 증폭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 “기능을 다한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함”으로 “구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서울의 문화, 환경, 교육,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김윤환 2009, “서울형 창작공간의 미션과 전략”,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pp.9.참조.)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2) 김윤환(2009)에 따르면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창작공간으로서 도심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살려 가능한 많은 창작공간을 조성하였다(김윤환 2009, “서울형 창작공간의 미션과 전략”,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pp.12.참조.)

즉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쇠퇴지구의 재활성화라는 목표³³⁾, 활동 예술가의 규모, 활동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래창작촌 사례의 속성에 가장 근접해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수준 및 공간적 조건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사례로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선정하였다.

3.2. 사례대상지의 일반 현황

3.2.1. 문래창작촌의 일반현황

(1) 창작클러스터 형성배경

2000년대 중반 문래창작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도림로 126~128길 일대 지역은, 1928년 일제에 의해 공업지대로 지정된 이후 서울 총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던 당시 영등포공업지역의 일부이다³⁴⁾. 1960년대 초부터 철공소·철재상·철재관련 유통사 등이 층별로 입주한 종합철재상가들이 입지하기 시작해 1990년까지 800여 업장으로 확장되었으나³⁵⁾, 1990년을 전후로 상당수의 공실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³⁶⁾.

2000년대 초반부터 해당공실들의 값싼 임대료 등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집적하기 시작했고, 홍대 및 대학로 일대의 지가상승 여파 등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부터 입주예술가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³⁷⁾ ‘문래창작촌’으로 불리우는 자

33) 문래창작촌이 철공소 노동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주변환경의 개선을 통해 명소화가 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하게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네트워크 및 시장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장골목살리기, 재래시장 DIY프로젝트 등 재래시장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주도의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되었다

34) 김연진 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 형성 연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75. 참조.

35) 이정옥,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27, pp.87-209. 참조.

36) 김연진, 위와 같은 글, p76. 참조.

37) 당시 문래동 철재상가 1층은 철공소 등 소규모 기계금속 관련 업체 등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2~3층은 거의 공실로 방치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였고 이는 창작

생적 창작클러스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문래사거리 서남단의 도림로와 경인로 77길 사이의 블록, 즉 옛 영단주택단지에도 창작실들이 조성되기 시작해 영역이 보다 확장되었다³⁸⁾.

(2) 공간현황

현재 문래창작촌에 형성된 창작실의 수와 활동 예술가들의 수는 정확한 최신 집계는 없으나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2011)는 2011년 현재 총 80여개의 창작실에 약 200여명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했다³⁹⁾. 입주예술가들의 활동분야는 회화·조각·설치미술·영상 등의 각종 시각예술, 연극·무용 등의 공연예술, 금속·나무·섬유 등의 공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 창작실들은 5~30평의 면적, 지하층에서 지상 2~3층 등의 입지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공간을 변용하여 사용한다. 임대비용은 평균적으로 평당 35만원 전후의 보증금과 월세 2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⁴⁰⁾.

촌의 형성 및 유지의 기반이 되었다. (김연진, 위와 같은 글, pp.86.참조.). 그러나 김연진은 같은 연구에서 문래동 철재상가의 가장 강력한 예술가 유입경로는 예술가들 사이의 네트워크였음을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입주한 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예술가들은 서로의 소개를 통해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38) 문래창작촌은 자생적으로 입주한 예술가 작업실이 밀집해 있는 창작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그 전체 영역의 경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영등포구 문래동, 자이아파트 단지 남단의 비정형 블록에서, 대형공장 이전부지 개발로 인해 조성된 에이스 벤처벨리 부지 2곳을 제외한 약 5만㎡의 면적에서 시작된 문래창작촌은 2000년대 중후반이후 문래사거리 남단의 과거 영단주택단지에 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김인선 외 3인(2010)은, 문래창작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철재상가 블록, 과거 영단주택단지 블록, 경인로 건너편의 영등포초교를 포함한 소규모 철공소 블록 등이 모두 포함된 약 40만㎡에 이르는 면적을 3구역으로 나누어 문래창작촌 및 그 영향범위로 간주한 바 있다.

39) 김인선 외 3인(2010)은 2010년 5월 현재, 110개의 작업실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40) 문래창작촌 예술가 대상 설문조사 시 총 28명이 자신의 작업실의 입주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상기된 금액은 입수한 개인별 입주비용에 대한 평균비용이다. 김연진(2010)은 문래동 철재상가의 임대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사이의 거간 역할은 초기에는 지역주민이, 현재는 예술가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연진, 위와 같은 글 pp.92. 참조.)

(3) 운영현황

현재 문래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은 없으나 예술가들 스스로 출범한 각종 동호회, 반상회, 연구조직 등이 다양한 연대·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⁴¹⁾.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래창작촌 동남단 블록 내 유희부지에 ‘문래예술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신규 창작공간의 제공보다는 인근 예술가들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기능은 공동작업장,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시설지원사업과 문래창작촌 내의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의 두 축으로 구분된다.



[그림 3] 2008년 당시의 문래창작촌 거리와 작업실 내부
(한겨레 2008년 7월 1일자, 게재 사진)



[그림 4] 문래창작촌의 인식적 범위와 문래예술공장의 위치 (네이버 항공뷰 이용 편집)

41) 현재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사업 운영의 관여, 입주예술가들의 권익보호, 지역사회 활동의 공동진행 등을 위한 조합체 결성이 특정 입주예술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주호 2012, “욕망에 출실하고 두려움 없이 말하라, 그게 어렵거든 이사람이 타준 커피를 마셔라”, ‘문래동네’, Vol. 011, pp.3-4, 수록 인터뷰기사)

3.2.2.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일반 현황

(1) 창작클러스터 조성 배경

신당창작아케이드로 조성된 공간은 본래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지하상가 공간이다. 1962년 조성된 서울중앙시장은 대지면적 16,919㎡에 총 건물 수는 42개, 점포 수는 노점 포함 600여개이고, 1,500여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규모이다⁴²⁾. 지난 1971년, 수요증가에 따라 지하부가 개발되어 이불, 한복, 회센터 등 99개 점포가 성업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상권이 위축되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지하상가 내부에 52개의 공실이 발생해 방치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공실들은 2007년 ‘서울시창작공간’의 추진 시 1차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42개의 창작실 및 부대시설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동시에 진행된 입주 예술가 공고 및 심사를 통해 1기 입주예술가 40팀이 선발되어, 2009년 10월 공식 개관과 함께 운영이 시작되었다⁴³⁾.

(2) 공간현황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총 면적 1,130.9㎡, 길이 390m의 중복도 지하공간에 35개의 전용창작실, 전시실 2실, 전시준비실 1실, 공동작업장 1실, 운영사무실 1실, 운영창고 2실 등, 총 42실이 구비되어 있다. 약 15~20㎡ 면적의 35개 전용창작실들에, 각종 공예, 북아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35개 팀 총 50여명이 입주하고 있다. 입주 예술가들은 지하상가 내 일반상업부문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평당 5,000원의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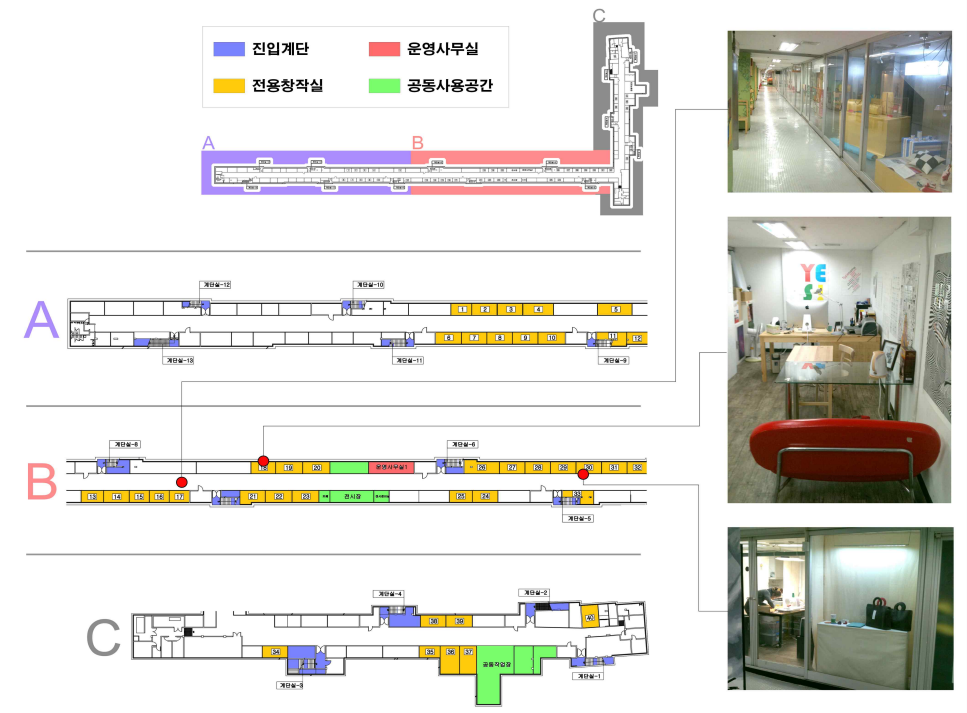
42) (사)서울중앙시장 상인회 제공, 2010년 자료

43)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 <http://www.seoulartspace.or.kr>

44) 서울중앙시장 내부에는 창작공간 외에도 40여 이불·한복·횃집 등 상업공간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평당 5만원을 서울시에 월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그림 5] 개관 당시의 신당창작아카데미의 진입계단
(문화일보 2009년 12월 19일자, 게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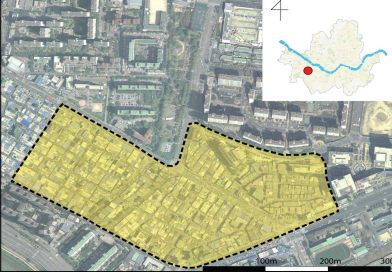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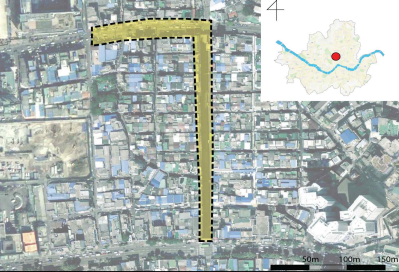


[그림 6] 신당창작아카데미의 평면구성 (신당창작아카데미 홈페이지 제공 도면 편집)

(3) 운영현황

시설운영 및 입주자 관리는 서울문화재단이 설치한 운영사무실 내 인원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⁴⁵⁾. 입주 예술가 선정은 매년 개최되는 입주작가 공모로 결정되는데, 기존 입주자는 재 입주 심사에 통과할 경우 재입주가 가능하고, 탈락자 발생에 따른 공실은 역시 심사를 통과한 신규 입주자에 의해 매워져 한 기수를 형성한다⁴⁶⁾. 입주예술가들은 출석일수 및 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⁴⁷⁾.

[표 7]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일반현황 비교

조사항목		문래창작촌	신당창작아케이드
위치 및 범위			
형성 경위	형성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내 종합철재상가 밀집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시장 지하상가 점포
	형성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상가 내 공실에 2000년대 초반 예술가 유입 시작 • 2005년 이후 증가함으로 집적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서울시창작공간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 • 2009년 9월 입주예술가 40팀 선발, 공식 개관
공간 현황	공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만㎡의 인식적 범위 내에 창작실이 산재 • 약 80여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0,9㎡의 지하공간 내에 창작실 집중배치 • 전용 창작실 35실을 비롯, 공동휴게실, 공동작업장, 공동전시실, 공동회의실, 운영사무실 등이 구비
	입주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00여명 활동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0여명 활동
운영 현황	공식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공식운영주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설 및 입주자 관리
	입주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적으로 평당 35만원의 보증금, 월세 2만원 •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없이 평당 월세 5천원 • 1년계약, 의무출석제도 및 재입주 심사제도 시행

- 45) 운영사무실의 구성은 총괄매니저 1명, 기획행정 2명, 행정스태프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실에서는 공간 및 입주자 관리와 더불어 각종 교육·지역밀착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시를 주관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면, 참여 희망 입주자들은 자신의 분야 및 아이디어에 따른 기획서를 제출하며, 참여자로 선정된 입주자들은 제출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 46) 즉 1년 단위로 입주예술가 명단이 교체된다. 각 창작공간은 그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입주예술가들의 선호가 갈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수가 시작될 때마다 추첨을 통해 각 창작실을 선정한다.
- 47) 의무출석일수와 출석시간을 각각 한달 단위로 15일 및 120시간이며, 지문채취기를 통해 출석현황이 관리되고 있다. 만약 2회 이상 의무 출석일수 및 출석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퇴실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외부 프로젝트 등에 따라 장기간 외부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 부재사유서의 제출을 통해 일정기간 출석을 유보할 수 있다.

3.3. 사례대상지의 네트워크 활동 현황

3.3.1. 문래창작촌의 네트워크 활동 현황

(1)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입주 예술가들의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즉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자생적 창작클러스터인 문래창작촌은 전체 입주예술가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주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체 입주자 대상 교류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일부 예술가들의 주도 및 연합을 통해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 10] 분석대상 창작클러스터 별 주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구분	활동명	주관	활동내용	시기
친목도모활동	문래예술공단	온오프무용단, Lab39	입주예술가들간의 반사회 성격 모임	2007년~
	썬데이 문래	소모임 '그날'	입주예술가들의 일일 물물교환 장터	2009~10년
	자율부엌 '소식'	Lab39	주1회, 입주예술가들이 각자 준비한 요리를 공유	2010년~
	금요식당	'생강' 이선화 작가	입주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매주 다른 테마가 반영된 식단을 기획	2011년~
동호회활동	문래골목산악회	'나무수레' 이경원 작가	입주예술가들과 철공소 종사자들의 월 1회 정기 산악회	2010년~
	씨네 문	나태홍 작가	문래창작촌 내 대안공간들을 순회하며 독립영화 상영	2008년~
공동기획	문래아카이브전	'보노보c'	입주예술가들의 공동전시, 작품 축적을 통한 아카이브화	2010년 ⁴⁸⁾
	문래동 사용하기 워크숍	Lab39	문래창작촌의 의의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워크숍	2009년
출판	저널문래	예술과마을네트워크	입주예술가 기고문, 문래창작촌관련 기획기사	2011년~
	문래동네	비주얼컬처안테나	입주예술가 및 문래창작촌 관련 소식지	2011년~

48) 2011년부터 대안공간 '숨씨'내부에 해당 전시작품들을 축적한 아카이브를 조성했다.

(2)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 현황

창작클러스터 별 네트워크를 기반 지역사회 대상 공공예술활동 현황을 살펴 보면 문래창작촌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골목길 꾸미기 등 공공미술을 통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이 자생적으로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문래아트데이’, ‘문래아트미트사운드’, ‘문래아트페스티벌’, ‘오픈스튜디오’, ‘문래인디필름데이’ 등 입주예술가들의 연합으로 문래창작촌 일대에서 진행되는 정기 축제형식의 행사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⁴⁹⁾.

[표 9]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의 주요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

활동명	주관	활동내용
오픈스튜디오	참여예술가	매년 여름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의 창작실을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일반인에 개방
옥상미술관 프로젝트	Lab39	건물 옥상을 예술가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문래도시텃밭	보노보c 외 5개 단체	건물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매월 2차례 텃밭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래아트데이	문래창작촌 내 5개 대안공간	5개 대안공간이 월 1회 연합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주민 대상의 각종 개방형 전시, 공연, 행사를 공동 기획
문래 ArtMeetSound 프로젝트	보노보c 주관, 서울문화재단 외 5개 단체 후원 및 협력	월 1회 다양한 장르의 밴드를 초빙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문화행사
문래아트페스티벌	문래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외 2개 단체	매년 10월, 다양한 장르의 입주예술가들이 무용, 연극, 회화, 사진, 영상 등 실험적인 창작과정을 개방하는 축제
경계없는 예술프로젝트	경계없는 예술센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장르를 초월한 다원적 예술소재로 구성된 예술활동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공예술 작업

49) 서울문화재단이 설립한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창작촌의 공공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문래예술공장의 예술지원 프로그램인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총 2회의 지원공고에 44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어 그중 17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3) 교류공간 조성 현황

문래창작촌 내 입주예술가들을 주로 이용하는 교류공간은 공공차원에서 조성된 교류공간과 입주예술가들에 의한 자생적 교류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차원에서 조성된 교류공간은 문래예술공장 내 교류공간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해당시설 내에는 인근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대형 공동작업장, 공연연습 및 공연을 위한 공연장, 녹음실, 세미나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예약 및 대관료 지불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문래창작촌 인근의 근린공원인 문래공원도 입주예술가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혹은 문화전시기획가들이 예술가들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생적 교류공간은 7개소가 있다. 이중 전시, 다과 및 주류 판매, 공연, 작업 등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된 이른바 ‘대안공간’이 4개소 있는데 이들 공간의 운영주체들은 ‘문래창작촌 대안공간 네트워크’라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 1회의 공식 회의를 통하여 문래창작촌 내의 각종 행사, 공동전시, 교류증진 등을 위한 기획들을 공동진행 한다.

한편, 입주예술가가 자신의 개인 작업실 일부를 개방공간으로 할애하고 있는 교류공간이 3개소 있다. 그 중 1개소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와 실내행사를 위한 개방공간을 마련하여 문래창작촌 대안공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2개소는 자신의 개인 작업과 함께 상시 간단한 음료판매 · 소규모 전시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표 10] 문래창작촌 내 자생적 교류공간 현황

유형	공간명	조성 및 운영 주체	용도
대안공간	비영리 문화공간 숨씨	개인 문화기획가	전시, 아카이브, 상시 다과 및 주류판매
	정다방	개인 문화기획가	전시, 공연, 워크샵, 상시 다과 및 주류판매
	대안공간 문	입주예술가	전시, 공연, 워크샵, 필요시 취식물 판매가능
	대안예술공간 이포	입주예술가	전시, 공연, 워크샵, 상시 다과 및 주류 판매
작업겸용 개방공간	아트스페이스 413	입주예술가	전시, 공연, 워크샵
	생강	입주예술가	상시 다과 및 창작품 판매
	내방	입주예술가	전시, 상시 다과 판매



[그림 7] 문래창작촌 내 교류공간 및 기타 공공공간현황

3.3.2.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활동 현황

(1)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입주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유도를 위하여 운영사무실 주관으로 각 기수별 기수오프 1회 및 월간 정기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월간 정기 간담회의 참석율은 30%대로 높지 않으며⁵¹⁾, 자생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례는 없다.

50)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09~2010, 2011, 2012년 각 입주대상자 심사를 거쳐 기수별 40팀 혹은 35팀 씩 총 3개 기수의 입주예술가 집단이 공간을 사용하여 왔다. 1기 입주자는 총 40팀, 2기와 3기 입주자는 총 35팀이다. 이들은 각각 재심사통과에 성공하여 중복되는 경우와, 한 팀당 공식사용인원을 초과한 경우를 감안하면 정확한 입주자 수 통계를 얻기 어렵다.

51) 신당창작아케이드 E작가와와의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의 속성은 4장 참조

[표 11]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

활동명	주관	활동내용	시기
기수별 엠티	운영사무실	교류증진을 위하여 전체 입주예술가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2009년~
정기간담회		교류증진 및 운영 소통을 위하여 월 2회 실시,	2009년~

(2)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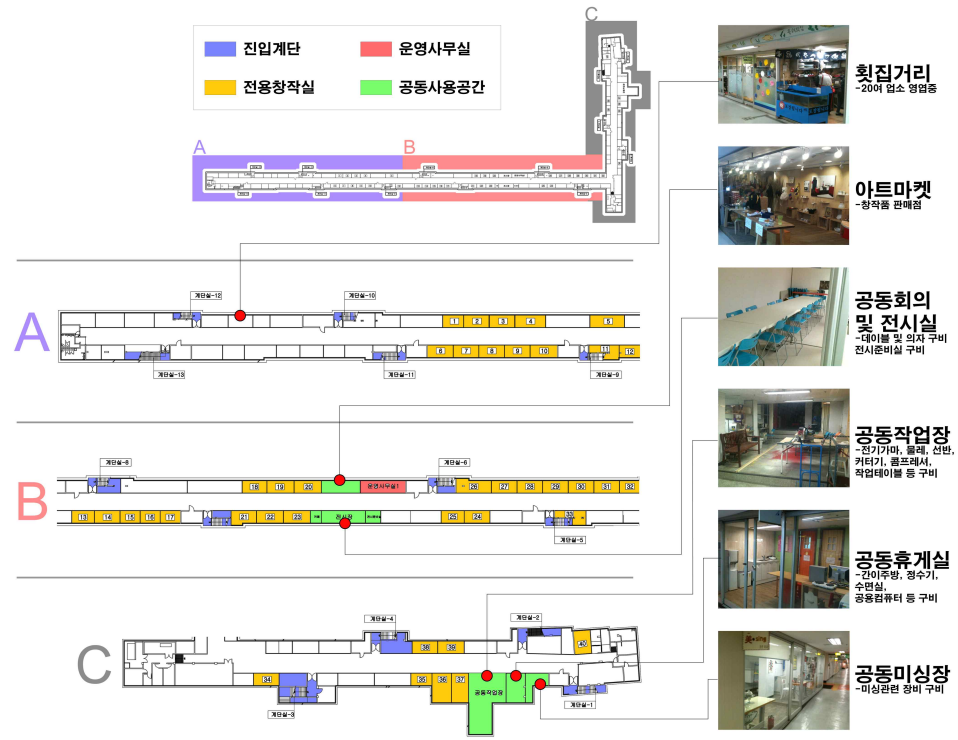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은 운영사무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입주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식 위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활동은 체험공방 프로그램인 ‘나도 예술가’로서 2009년 개관 이후 매년 2회기씩 구분하여 참여 예술가를 모집하며 각 참여자의 활동영역에 기반한 교육·체험과정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를 주요 동기 및 대상으로 설정한 자생적 공공예술활동으로 입주예술가인 이미화 작가가 중심이 된 ‘신당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가 있다. ‘신당생활사박물관’은 입주예술가 8인·시장상인 4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폐 유리병, 폐 장판조각, 수세미 등 시장의 일상용품들을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해 전시하는 프로젝트⁵²⁾로서 서교예술실험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상설 전시부스에 전시되어있다.

(3) 교류공간 조성현황

신당창작아케이드 내에는 폐점포를 활용한 35개의 전용창작실 외에도 입주예술가들의 교류, 공동작업, 공동회의, 창작품 판매 등을 위한 공동사용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관찰조사 결과 문래창작촌의 대안공간들과는 달리 각 공간들은 특정 기능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상적인 이용이 드문 편이다.

52) 이웃사회 2012, “신당생활사박물관 브로슈어”, 서울문화재단, pp.8-12. 참조.



[그림 8]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공동사용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홈페이지 제공 도면 편집)

[표 14]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공동사용공간

공간명칭	용도	구비물품	구성 및 운영주체
공동회의 및 전시실	입주자들의 교류 및 작품전시	테이블, 의자, 프로젝터, 전시준비실	운영사무실
공동휴게실	입주자들의 요식, 휴식 등의 편의제공	주방, 정수기, 공용컴퓨터 등	
공동작업장	단체, 대형작업	전기가마, 물레, 선반, 콤프레셔 등	
공동미싱장	미싱관련 작업	미싱관련 장비	
아트마켓	예술품 판매	판매진열대, 가판대	

3.4. 소결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각각 200여명과 50여명에 이르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도시 내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창작클러스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두 사례는 각각 노후한 공업지역 및 상대적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내에 입지해 있어 쇠퇴지구의 도시재생이라는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래창작촌은 약 5만㎡의 인식적 범위 내에 각 창작실들이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는 동일시설 내에 창작실들이 병렬식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공간적 차이가 있다. 즉 문래창작촌이 자생적인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계획적인 ‘시설형’으로 예술가들이 동일시설 내 규격화된 작업실에 수용되어 있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문래창작촌은 입주예술가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기반 한 지역사회 대상 활동들이 대부분 자생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운영사무실 주관으로 추진되어 예술가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의 입장이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주체상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편, 문래창작촌 내에 조성된 7개소의 교류공간들은 개별적인 만남의 수용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활동의 수용 기반을 갖추어 입주예술가들의 이용비율이 높다. 따라서 각 교류공간들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도 입주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장려를 위한 공동사용공간들이 5개소 제공되어 있지만, 해당공간들의 역할은 일상활동의 수용보다는 개인 필요에 따른 일회성 편의 제공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례연구 결과는 문래창작촌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가정과, 사례별 공간적인 차이가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이끌어 낸다.

이 같은 가정은 상호작용이 활발한 문화지구의 공통점을 공간이용의 다양성과 활성화된 공공공간의 존재여부로 보고 있는 몽고메리(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문헌 · 관찰 · 인터뷰조사 만으로는 지금껏 살펴본 사례별 차이

의 유의미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를 논하기 어려우므로, 4장에서는 이상의 고찰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과정을 거친 분석결과 해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4장.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이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4.1. 분석의 틀

4.1.1. 연구문제의 설정

이상의 고찰결과를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수준 및 예상영향요인 변수를 개인수준으로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 실제로 네트워크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예상영향요인 변수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둘째, 사례별로 공간이용차원의 변수들이 네트워크 수준과 실제 상관관계에 있는지 검증한다. 첫째로 개인의 총 이용공간의 수가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세부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위한 공간이용과의 상관성이 유의한지 사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로는 개인별 교류공간 이용정도와 네트워크 수준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셋째, 사례별로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심화되는 경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상기한 공간이용현황 차이와의 관련성 및 네트워크 형성과정과의 전후관계를 확인한다.

4.1.2. 측정항목 설정 및 자료수집 방법

상기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분석대상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과 개인변수들을 측정했다.

개인별 네트워크의 수준은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에서 개인별로 구축하고 있는 교류망의 형성 시점 및 교류빈도별 양적규모로 측정한다. 응답자들은 우선 교류관계⁵³⁾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타 예술가들의 수를 기입하였으며, 그 중 해당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경우와 입주 이후 새롭게 교류관계를 구축한 경우를 구분하였고, 입주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경우는 다시 해당 창작클러스터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입주 이전 해당 창작클러스터 외부의 교류망, 입주 이전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교류망, 입주 이후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교류망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입주 이후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부의 교류망에 해당하는 수치를 다시 월 1회 이상 교류⁵⁴⁾하고 있는 타 예술가들의 수, 주 1회 이상 교류하고 있는 타 예술가들의 수 순으로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개인별 변수는 기존 연구들에 의해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되어 2장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요인들과 공간이용현황에 관한 항목들을 변수화 하고, 일반적 개인속성들을 추가하여 측정했다. 공간이용현황은 각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을 각각 창작활동(재료조달, 창작, 전시 및 공연, 창작성 판매)과 일상활동(식사 및 다과, 여가 및 취미, 유흥 및 음주, 일상품 구매)로 나누어 각 활동별 이용공간의 수, 연평균활동일수, 각 활동을 위한 공간조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과 측정방법은 표13과 같다.

또한 교류공간 이용정도 변수의 구축을 위해서는 응답자들은 사례범위 내에서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 시 이용하는 공간들의 자료를 수집했다. 응답자들은 자신 또는 타인 작업실을 제외한 개방공간 중, 타 예술가와의 교류 시 이용하는 공간의 명칭, 주 용도, 이용빈도 수를 기입했으며, 지도상에 각 위치를 직접

53) 이때 '교류관계'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를 의미하며,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만 계수하도록 요청한다.

54) 이때 '교류'란 창작활동/일상활동 상의 목적을 불문한 오프라인 만남을 의미하며,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즉흥적인 만남이 아닌 사전 약속이 전제된 만남의 경우만 계수하도록 요청한다.

포시했다. 이 중 사전 선정된 문래창작촌 내 7개소의 교류공간과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5개소의 교류공간의 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변수화 했다. 해당 변수는 ‘교류공간 이용정도’로 명명하였으며, 이용 교류공간의 수 및 이용빈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이용 교류공간의 수’, ‘주 1회 이상 이용 교류공간의 수’, ‘주 3회 이상 이용 교류공간의 수’를 합산한 수치를 활용한다.

[표 13] 측정항목 및 설명

구분	측정항목 / 변수		설명	측정방법	
네트워크 관련 변수	A) 전체 교류자규모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타 예술가들의 수	해당 수 기입	
	기존 네트워크 규모 (외부)		입주이전, 해당 창작클러스터 외부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규모		
	B) 신규 교류자규모		A 중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후 교류를 시작하게된 타 예술가들의 수		
	C) 월 정기교류자규모		B. 중 월 1회이상 교류하고 있는 타 예술가들의 수		
	주 정기교류자규모		C. 중 주 1회이상 교류하고 있는 타 예술가들의 수		
	교류빈도		창작클러스터 내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빈도		년/월/주간 택 1, 교류횟수 기입
예술영향 요인 변수	기존 네트워크 규모 (내부)		입주이전,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부 입주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규모	수 기입	
	내부 활동시간	입주기간	해당 창작클러스터에의 입주 기간		
		하루단위 활동시간	하루중 해당 창작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네트워크 활용정도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가 자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7 점척도 평가	
	네트워크 의식	네트워크 형성 의지	창작활동상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절감여부	7 점척도 평가 및 직접 내용 기입	
		공동목표의식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에서 예술가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공동목표의식 절감여부 및 그 내용		
	활동자율성	공간계약평가	공간활용상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평가	7 점척도 평가	
		시간계약평가	시간활용상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평가	7 점척도 평가	
	공간이용현황	활동유형별 이용공간의 수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에서 각 활동유형별(창작, 재료조달,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요식, 여가 및 취미, 유희 및 음주, 일상품 구매)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실 기준)의 수	수 기입
		활동유형별 연평균활동일수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각 활동유형별 (창작, 재료조달,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요식, 여가 및 취미, 유희 및 음주, 일상품 구매)연 평균활동일수	년/월/주간 택 1, 수 기입
		활동유형별 공간조건 만족도		해당 창작클러스터가 각 활동유형 (창작, 재료조달,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요식, 여가 및 취미, 유희 및 음주, 일상품 구매)별 활동을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7 점척도 평가
		총 이용공간		자신의 창작실을 제외하고 해당 창작클러스터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의 수	활동유형별 각 이용공간의 수 측정결과를 합산
		이용 교류공간 정보		자신 또는 타인의 창작실을 제외하고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시 이용하는 공간들의 각 명칭, 이용빈도 및 위치	수, 공간별 이용빈도, 위치 기입
	일반 개인속성	활동분야		시각예술 · 공연예술 등 해당 예술가의 활동장르	직접 내용 기입
		성별		남녀 구분	성별선택
연령		연령 구분	수 기입		
학력		학력 구분	학력 선택		

설정된 항목들의 측정을 위하여,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각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각 입주예술가들의 개별 창작실로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2012년 3월-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4.1.3. 분석방법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 검정은 우선 전체 집단을 문래창작촌 30명과 신당창작아케이드 30명으로 구분한 후, 네트워크 수준 및 각 설명변수 측정치의 사례집단간 차이를 비교한다. 비교분석은 각 사례 집단별 변수 간 평균값을 비교한 후, t-검정을 통해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정 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한다.

개인별 공간이용현황과 각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성은, 창작클러스터 내 개인별 총 이용공간의 수, 교류공간 이용정도의 변수 및 기타 개인변수들과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된다. 상관분석은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있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총 이용공간 중 세부적으로 어떤 공간이용이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측정항목 중 활동유형별 이용공간의 수 변수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수준 변수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정기적 교류가 수반되는 관계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교류하는 타 예술가의 수'로 설정한다.

사례별로 각 총 개인별 이용공간의 수 및 교류공간의 이용정도와 네트워크 수준과의 관련성이 상관분석을 통해 입증된다 하더라도, 각 변수간의 전후관계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례별 입주예술가들 대상의 인터뷰조사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심화되는 경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그 진술과정 중 공간적 조건에 해당하는 언급들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상기한 계량분석 결과에 따른 사례별 공간적 차이가 실제 네트워크 형성 및 심화과정 상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4.2. 사례집단별 설문응답결과 비교

4.2.1. 설문응답자의 속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일반적 개인속성은 표1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68.3%로서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의 여성비율은 80%로서 56%로 나타난 문래창작촌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2~30대가 문래창작촌의 경우 86.6%, 신당창작촌의 경우 90.0%로 나타나 두 사례별 모두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 학력자가 두 사례모두 9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석사학력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은 신당창작아케이드가 56.7%, 문래창작촌은 30%로 나타난다. 활동유형은 양사례 모두 시각예술, 공예부문이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 공예의 비중이 60%로서 26.7%인 문래창작촌의 경우보다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⁵⁵⁾.

[표 14] 사례별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개인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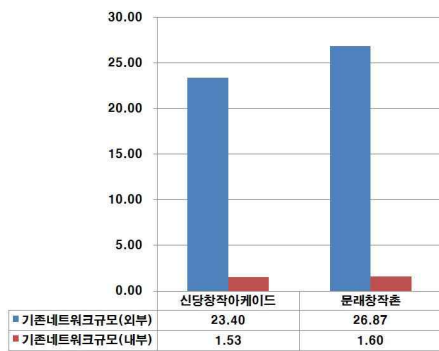
구분	문래창작촌		신당창작아케이드		
	빈도	%	빈도	%	
성별	남	13	43.3	6	20.0
	여	17	56.7	24	80.0
연령	20대	10	33.3	9	30.0
	30대	16	53.3	18	60.0
	40대	3	10.0	3	10.0
	50대	1	3.3	-	-
학력	고졸	2	6.7	3	10.0
	학사	19	63.3	10	33.3
	석사	9	30.0	17	56.7
활동유형	시각예술	13	43.3	11	36.7
	공예	8	26.7	18	60.0
	전시기획	5	16.7	-	-
	커뮤니티아트	2	6.7	-	-
	기타	2	6.7	1	3.3

55) 그러나 이를 동일한 예술장르 집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공예로 분류된 활동유형은 다시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도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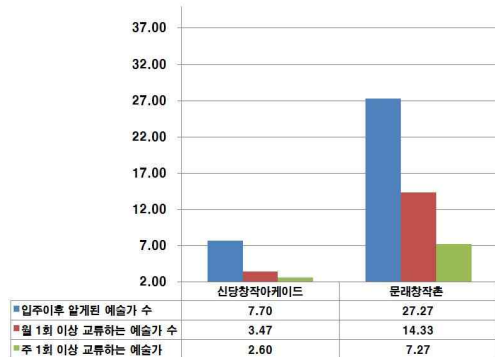
4.2.2. 사례집단별 단순 평균비교

(1)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 평균비교

우선 해당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전 외부 네트워크 규모의 경우 신당창작아케이드가 평균 23.4명, 문래창작촌이 평균 26.67명으로 나타났고, 입주 이전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부 네트워크 규모의 경우 신당창작아케이드가 평균 1.53명, 평균 1.6명으로 나타나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 이후 새롭게 교류를 시작하게 된 평균 네트워크의 규모를 살펴보면, 문래창작촌의 경우에는 개인당 평균 27.27명으로, 7.7명으로 나타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보다 3.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월 1회 이상 교류하는 예술가의 수 평균치 또한 문래창작촌의 경우 개인당 14.33명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보다 4.1배 가량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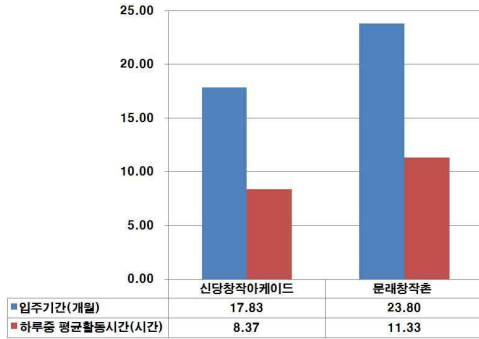
[그림 9] 개인별 기존 네트워크 규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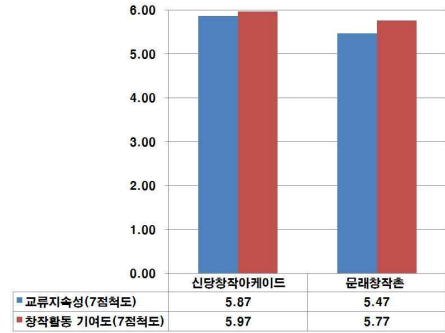
[그림 10] 개인별 신규 내부 네트워크 규모(명)

(2) 내부 활동시간 및 네트워크 활용정도 비교

각 창작클러스터 내 평균 입주기간을 살펴보면 문래창작촌 설문응답자의 경우가 평균 23.2개월로서 신당창작아케이드 설문응답자들의 평균 활동개월 수 보다 5.97개월 길었다. 하루 중 평균활동시간 또한 문래창작촌의 경우가 평균 11.20시간으로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보다 2.96시간 가량 더 오랜시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네트워크 활동이 자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양 사례 응답자 대부분은 5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그림12 참조).



[그림 11] 개인별 평균 내부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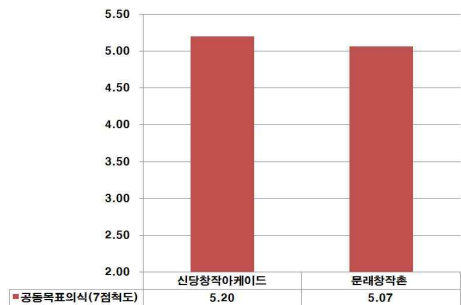
[그림 12] 네트워크 활용정도 평가

(2) 네트워크 의식 현황 비교

각 창작클러스터 별 내부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의식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형성 의지의 경우 문래창작촌이 평균 5.93점, 신당창작아케이드가 평균 6.07점으로 후자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목표의식의 경우 문래창작촌이 평균 5.07점,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 5.20점으로 역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창작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공동목표의 내용에 관하여 문래창작촌은 21명,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명이 응답하였는데 각 사례별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목표를 언급한 경우가 각각 70%이상으로 동일하게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언급한 경우 각각 67%, 7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13] 네트워크 형성의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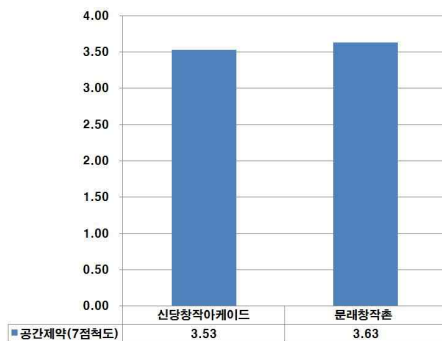
[그림 14] 공동목표의식 절감여부 평가

[표 15] 창작클러스터 내 공동목표의식의 내용 언급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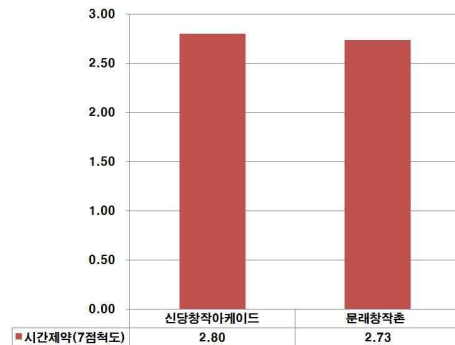
내용구분	문래창작촌 (총 21명 응답)			신당창작아카데미 (총 20명 응답)			
	주요 내용	중복 언급	계	주요 내용	중복 언급	계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관련	보편적 역할	비람직한 도시개발을 위한 고민	1	해당 지역 언급	공공예술의 수준향상	2	16
	해당 지역 언급	재개발로부터 문래창작촌의 보전	5		중양시장의 활성화	5	
		문래창작촌 및 주변공간의 환경개선	1		신당동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발전에 기여	3	
		문래동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발전에 기여	4		신당동 주민들과의 교류 및 문화예술기회 제공	4	
		문래동 주민들과의 교류 및 문화예술기회 제공	2		신당창작아카데미의 홍보 및 활성화	2	
		문래창작촌의 홍보 및 활성화	2				
공동 작업관련	공동 프로젝트의 진행	2	2	공동 프로젝트의 진행	3	3	
예술가 권익관련	경제활동 기반 마련	2	4	경제활동 기반 마련	1	2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한 결속	2		창작공간 운영관련 의견개진을 위한 결속	1		

(3) 활동자율성 현황 비교

입주예술가의 활동자율성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공간적 · 시간적 제약⁵⁶⁾ 정도의 평가문항을 설문 시 활용하였다. 공간적 제약 평가 결과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카데미 각각 평균 3.63점, 3.53점으로 두 사례 모두 4점(보통) 이하의 평균 평가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2.73점, 2.80점으로 두 사례 모두 3점(별로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 이하의 평균 평가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15] 공간적 제약 평가 결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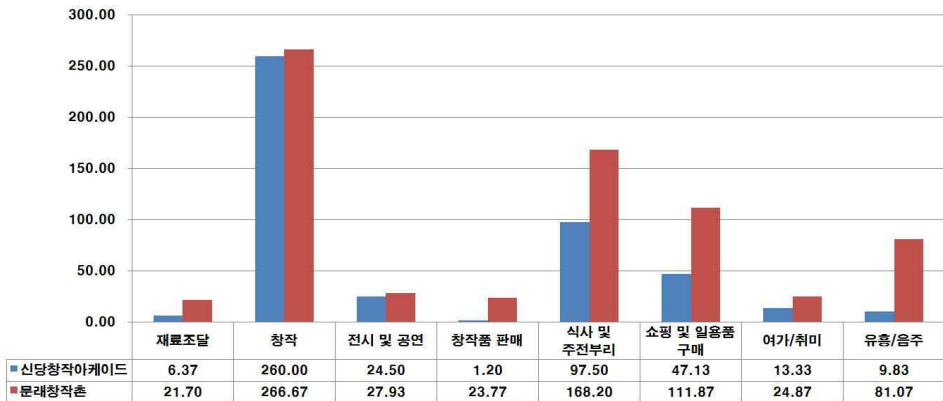


[그림 16] 시간적 제약 평가 결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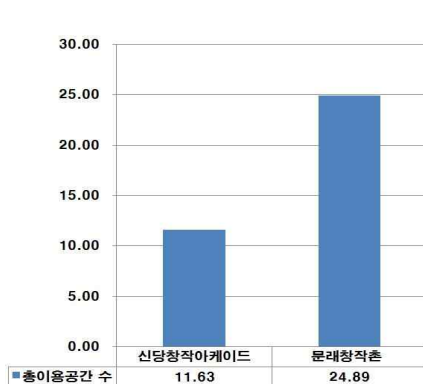
56) 각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창작활동시, 공간적인 조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특정시간 대의 불편함' 등 시간 활용상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7점(아주 불편하다고 느낀다.)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4) 공간이용현황

이용공간의 다양성 파악 측면에서 조사한 개인별 총 이용공간의 수는 문래창작촌의 경우 평균 24.3곳으로 11.63곳으로 나타난 신당창작아케이드 경우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개인별로 예술가들과 교류 시 이용하는 공간의 수를 살펴보면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문래창작촌의 경우 평균 5.27개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사한 각 창작클러스터 내부에서의 창작 및 일상활동 별 연평균 활동일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활동유형에서 문래창작촌의 평균 활동일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7 참조).



[그림 17] 활동유형별 개인당 창작클러스터 내 연평균 활동일수



[그림 18] 개인별 창작클러스터 내 총 이용공간의 수



[그림 19] 개인별 이용 교류공간의 수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이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위해 이용한다고 밝힌 공간들을 취합하여 각 공간의 사례별 전체응답자 대비 이용비율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문래창작촌에서는 총 26개소의 공간이 도출되었으며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는 총 9개의 공간이 도출되었다. 문래창작촌의 교류공간 7개소 중 5개소는 전체응답자 대비 과반이상이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는 전체응답자 대비 과반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교류공간이 드러나지 않아, 양 사례간 교류공간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례조사결과의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16] 교류공간으로 이용한다고 응답된 개방공간 목록

구분	공간명	공간유형	주요도	응답수	응답비율
문래창작촌	비영리문화공간 숨씨	대안공간	전시, 친목, 관람	25	83%
	대안공간 문	대안공간	전시, 워크샵, 공연, 회의	25	83%
	정다방	대안공간	전시, 친목	23	77%
	생강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전시, 친목	20	67%
	대안예술공간 이포	대안공간	전시, 워크샵, 공연	15	50%
	413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전시, 회의	10	33%
	문래도시텃밭	옥상텃밭	텃밭가꾸기 강좌, 친목	9	30%
	내방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전시, 친목	8	27%
	문래예술공장-세미나	공공시설	워크샵	6	20%
	나무수레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작업, 친목	6	20%
	문래예술공장-갤러리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전시	5	17%
	문래예술공장-스튜디오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공동작업	5	17%
	안테나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기획, 친목	5	17%
	Lab39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친목	4	13%
	세현정밀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친목, 공연	4	13%
	노네임노샵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작업, 기구 대여 및 공유	3	10%
	문래예술공장-공연장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공연	2	7%
	도시사회연구소	사무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연구 및 기획	2	7%
	예술과마을네트워크	사무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연구, 회의, 세미나	2	7%
	문래공원	근린공원	주민대상 프로그램, 친목	2	7%
시간복	작업실 겸용 개방공간	공동작업	1	3%	
가정식당	대중식당	친목	1	3%	
당구장	여가시설	친목	1	3%	
문래갈비	대중식당	친목, 회의	1	3%	
해물탕집	대중식당	친목, 회의	1	3%	
송원갈비	대중식당	친목도모	1	3%	
신당창작아카데미	공동작업실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공동작업	12	40%
	공동전시실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공동전시, 회의, 출책	12	40%
	공동휴게실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친목, 공동식사, 회의	12	40%
	며자골목	재래시장 내 식당밀집 골목	친목	7	23%
	콩나물국밥집	대중식당	친목	1	7%
	까페 번	대중커피샵	친목	2	7%
	공동미싱장	예술가 대상 공공시설	공동작업	2	7%
	동해횃집	대중식당	친목	1	3%
	시장주변주점	대중주점	친목	1	3%

회색 음영 : 양 사례 내 조성되어 교류공간으로서, 교류공간 이용정도 변수의 구축시 반영된 공간들

[표 17] 네트워크 수준변수와 예상영향요인변수 측정치 평균비교

조사단위	조사항목 / 세부항목		문래창작촌	신당창작아카데미
네트워크 관련 변수	기존 외부 네트워크 규모(명)		28.87	23.40
	현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후 신규 교류자 규모(명)		27.27	7.70
	월 1회 이상 교류자 규모(명)		14.33	3.50
	주 1회 이상 교류자 규모(명)		7.27	2.60
	월 평균 교류횟수(회)		13.27	6.80
예상 영향 요인 변수	내부 활동시간	입주개월 수(개월)	23.80	17.83
		하루단위 활동시간(시간)	11.80	8.37
	기존 내부 네트워크 규모(명)		1.60	1.53
	네트워크의 창작활동 기여도 (7점)		5.77	5.97
	네트워크 의식	네트워크 형성 의지(7점)	5.93	6.07
		공동목표의식(7점)	5.07	5.20
	활동자율성	공간활동자율성(7점)	3.63	3.53
		시간활동자율성(7점)	2.73	2.80
	재료조달	연평균활동일수(일)	21.70	6.37
		이용공간의 수(개)	1.53	1.37
		만족도평균(7점)	2.90	3.20
	창작	연평균활동일수(일)	266.67	260
		이용공간의 수(개)	1.47	1.07
		만족도평균(7점)	4.97	5.10
	전시 및 공연	연평균활동일수(일)	27.93	24.5
		이용공간의 수(개)	1.47	0.83
		만족도평균(7점)	4.0	3.23
	창작품 판매	연평균활동일수(일)	23.77	1.20
		이용공간의 수(개)	0.47	0.63
		만족도평균(7점)	2.37	2.53
	식사 및 다과	연평균활동일수(일)	168.20	97.5
		이용공간의 수(개)	6.27	2.73
		만족도평균(7점)	4.67	3.73
일상용품 구매	연평균활동일수(일)	111.87	47.13	
	이용공간의 수(개)	2.07	1.80	
	만족도평균(7점)	4.93	3.80	
여가 및 취미	연평균활동일수(일)	24.87	13.33	
	이용공간의 수(개)	0.50	0.10	
	만족도평균(7점)	2.73	2.13	
유희 및 음주	연평균활동일수(일)	81.07	9.83	
	이용공간의 수(개)	2.73	0.60	
	만족도평균(7점)	4.20	2.80	
총 이용공간의 수(개)		24.30	11.63	
지정된 교류공간 이용개수 (월1회 기준, 개)		1.4	4.43	

4.2.3. 사례별 설문응답결과 차이의 유의미성 검증

설문응답결과의 비교를 통해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각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 변수 간에 드러난 차이의 유의미성 검정을 위해 실시한 t-검정 결과는 표18과 같다.

[표 18] 사례집단간 네트워크 관련 변수 t-검정 결과

조사항목 / 세부항목	동분산가정 여부	t-검정			
		Levene 동분산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기존 외부 네트워크 규모(명)	O	.194	.455	58	.651
현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후 신규 교류자 규모(명)	X	.002	3,345**	31,314	.002
월 1회 이상 교류자 규모(명)	X	.000	4,124**	32,292	.000
주 1회 이상 교류자 규모(명)	X	.026	3,227**	35,949	.001
월 평균 교류횟수(회)	X	.023	3,615**	49,733	.001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사례별로 해당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전의 외부 네트워크 규모는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가 각각 평균 28.87명과 23.40명이었는데 t-검정 결과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례별 창작클러스터 입주 이후에 새롭게 교류관계가 형성된 네트워크의 규모는 문래창작촌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었고 이 차이는 높은 수준의 유의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교류자 및 주 1회 이상 정기교류자의 수 그리고 월 평균교류 횟수 변수에서 드러난 사례별 차이 또한 모두 유의미하다고 드러난다. 따라서 문래창작촌 입주 예술가들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예술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입주 이후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월 · 주 정기교류자의 수 및 월 평균 교류 횟수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인 네트워크 수준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각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 19] 사례집단간 예상영향요인 변수 t-검정결과

조사항목 / 세부항목		등분상가정 여부	t-검정				
			Levene 등분상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개인속성	연령	O	.500	.189	58	.850	
	성별	X	.000	-1.973	55,529	.053	
	교육수준	O	.075	-1.440	58	.165	
기존 내부 네트워크 규모(명)		O	.962	.187	58	.852	
내부 활동시간	입주개월 수(개월)	O	.465	1.303	58	.198	
	하루단위 활동시간(시간)	X	.000	2.242*	39,235	.031	
네트워크의 창작활동 기여도 (7점)		O	.252	.694	58	.491	
네트워크 의식	네트워크 형성 의지(7점)	O	.517	-.464	58	.644	
	공동목표의식(7점)	O	.353	-.367	58	.715	
활동자율성	공간활동자율성(7점)	O	.129	.229	58	.820	
	시간활동자율성(7점)	O	.017	-.159	58	.874	
활동유형별 공간이용현황	재료조달	연평균활동일수(일)	X	.003	2.057*	35,387	.047
		이용공간의 수(개)	O	0.191	.424	58	.673
		만족도평균(7점)	O	.482	-.809	58	.422
	창작	연평균활동일수(일)	X	.003	.472	47,917	.639
		이용공간의 수(개)	X	.000	2.257*	33,229	.031
		만족도평균(7점)	O	.141	-.425	55,078	.673
	전시 공연	연평균활동일수(일)	O	.832	.170	58	.866
		이용공간의 수(개)	O	.097	1.853	58	.069
		만족도평균(7점)	O	.991	2.087*	58	.041
	창작품 판매	연평균활동일수(일)	X	.000	1.986	29,100	.057
		이용공간의 수(개)	O	.560	-.437	58	.664
		만족도평균(7점)	O	.866	-.535	58	.595
	식사 다과	연평균활동일수(일)	O	.264	2.606*	58	.012
		이용공간의 수(개)	O	.055	3.316**	58	.002
		만족도평균(7점)	O	.188	2.642*	58	.011
	일상용품 구매	연평균활동일수(일)	O	.014	3.439**	58	.001
		이용공간의 수(개)	O	.105	.621	58	.537
		만족도평균(7점)	O	.297	3.122**	58	.003
	여가 취미	연평균활동일수(일)	O	.288	.848	58	.400
		이용공간의 수(개)	X	.000	2.504*	36,880	.017
		만족도평균(7점)	X	.000	2.260*	46,561	.029
	유희 및 즐거움	연평균활동일수(일)	X	.000	6.085**	33,182	.000
		이용공간의 수(개)	O	.005	5.154**	58	.000
		만족도평균(7점)	O	.457	3.776**	58	.000
총 이용공간의 수(개)		O	.108	4.548**	58	.000	
교류공간 이용정도 (월1회 기준, 개)		O	.164	-5.191**	58	.00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차이와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속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기존 내부 네트워크의 규모 등을 비롯한 기타 예상영향요인 변수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별로 유의성이 드러나고 있는 네트워크 수준의 차이가, 개인의 의식·성향·조건이 상이한 집단군으로 구분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각 사례 자체가 지닌 변수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예상영향요인 변수 중 하루단위 창작클러스터 내 활동시간은 문래창작촌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2.96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간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활동유형, 즉 재료조달, 창작성 판매, 식사 및 다과, 일상용품구매, 유희 및 음주의 연평균활동일 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식사 및 다과, 유희 및 음주에 해당하는 활동유형에서는 연평균활동일수, 이용공간의 수, 해당 활동조건의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활동 유형에서도 이용공간의 수와 만족도 측면에서 사례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전 조사된 각 창작클러스터 내의 교류공간들을 이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문래창작촌의 경우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차이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창작실 자체의 연평균활동일수와 만족도는 사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통해,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 및 이용공간의 범위 측면에서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보다 많은 공간에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이 개인 작업실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 신당창작아케이드와 달리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은 창작활동 뿐 아니라, 각종 일상활동을 위해서도 창작클러스터 범위 내의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 중 내부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의 경우 창작클러스터 내에 조성된 각 교류공간을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다른 예상영향요인 변수 보다는 특정 활동유형의 연 평균 활동일수 및 이용공간의수, 교류공간의 이용 정도 등 공간이용 차원의 변수가 사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례별로 상이한 환경으로 조성된 공간적 조건이 입주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집단 간 평균차이의 검토 및 유의미성 검증만으로는 각 개인별 공간이용차원의 변수들과 실제 네트워크 수준과의 관련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사례집단 내 개인수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이용차원의 변수들이 실제 다른 변수들에 비해 네트워크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또 사례별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관계가 무엇인지 도출하도록 한다.

4.3. 네트워크 수준과 영향요인 변수들 간 상관분석

4.3.1. 상관분석 항목의 설정

사례별 상관분석에 포함될 항목들은 표20과 같다. 각 예상영향요인 변수들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준 항목으로는 일회성 만남을 배제한 네트워크의 규모로 한정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타 예술가의 수'로 설정했다. 각 공간이용차원의 항목들과 네트워크 수준간의 상관성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예상요인 변수들을 포함한다. 공간이용차원의 항목에는 해당 창작클러스터 내 공간적 범위를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변하는 '총 이용공간의 수'를 포함하였으며 각 공간들 중에서도 어떤 활동유형의 이용이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측정 시 사전에 8개 유형으로 구분된 각 활동유형별 이용공간의 수를 각각 포함한다. 또한 각 창작클러스터 내 교류공간의 이용정도와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류공간의 이용정도를 포함한다.

상관분석은 사례별로 각 30인 집단으로 구분해 각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수준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 결과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과 일반 예상요인 변수항목, 그리고 공간이용차원 변수항목 간 상관성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며, 네트워크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을 추려 해당 항목 간의 상관분석을 재차 실시한다.

[표 20] 상관분석 항목

구분	항목 (분석결과 표에 삽입된 항목명)
네트워크 수준	월 1회 이상 교류하는 타 예술가의 수 (월 정기교류자)
일반 예상요인 변수	입주기간
	하루중 평균활동시간 (활동시간)
	기존 내부 네트워크 규모 (기존 네트워크 규모)
	교류활동의 창작활동 기여도 (창작기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네트워크 의지)
	공동목표의식의 절감여부 (공동목표의식)
	공간활용 자율성 (공간활용 자율)
	시간활용 자율성 (시간활용 자율)
공간이용차원 변수	총 이용공간의 수 (총 이용공간 수)
	재료조달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재료조달)
	창작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창작)
	전시 및 공연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예술품 판매)
	식사 및 다과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식사 및 다과)
	일상용품 구매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일상용품 구매)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여가 및 취미)
	음주 및 유흥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음주 및 유흥)
	각 창작클러스터 내 조성된 교류공간의 이용정도 (교류공간 이용)

4.3.1. 사례별 상관분석 결과

(1) 문래창작촌

문래창작촌 사례집단 30인의 각 항목 측정치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22와 같다.

[표 21]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일반 예상영향요인 간 상관분석결과

		월정기 교류자	입주기간	활동시간	기존네트워크 규모	창작기여	네트워크의치	공동목적의식	공간활용차용	시간활용차용
월 정기 교류자	Pearson계수	1	.614**	.353	.096	.081	-.042	.257	-.013	-.306
	유의확률(양측)		.000	.056	.612	.669	.825	.171	.945	.100
	N	30	30	30	30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표 22]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공간이용관련 항목 간 상관분석결과

		월 정기 교류자	총 이용공간 수	재료 조달	창작	전시 및 공연	예술 품판매	식사 및 다과	일상 품구매	여가 및 취미	유흥 및 읍주	교류공간이용
월 정기 교류자	Pearson계수	1	.528**	.226	.224	.192	.174	.611**	-.057	.135	.178	.680**
	유의확률(양측)		.003	.230	.233	.311	.357	.000	.766	.476	.346	.000
	N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수준변수로 활용된 월 정기 교류자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일반 예상요인 항목은 입주기간이 유일하였다. 공간이용차원의 항목들 중에서는 총 이용공간 수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식사 및 다과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교류공간의 이용정도 항목들과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수준변수와의 상관성이 유의한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3과 같다.

[표 23] 문래창작촌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 간 상관분석결과

		월정기교류자	입주기간	식사 및 다과	총이용공간수	교류공간이용
월정기교류자	Pearson상관계수	1	.614**	.611**	.528**	.68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3	.000
	N	30	30	30	30	30
입주기간	Pearson상관계수	.614**	1	.645**	.748**	.41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21
	N	30	30	30	30	30
식사 및 다과	Pearson상관계수	.611**	.645**	1	.814**	.38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70
	N	30	30	30	30	30
총이용공간수	Pearson상관계수	.528**	.748**	.814**	1	.486*
	유의확률 (양쪽)	.003	.000	.000		.016
	N	30	30	30	30	30
교류공간이용	Pearson상관계수	.680**	.419*	.385	.486*	1
	유의확률 (양쪽)	.000	.021	.070	.016	
	N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입주기간 항목은 상기한 공간이용차원의 항목들과도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입주기간이 긴 입주예술가일 수록 총 이용 공간의 수, 식사 및 다과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가 많고 교류공간 이용정도가 높다. 그러나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입주기간이 아닌 교류공간의 이용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 수준과 입주기간 그리고 교류공간 이용정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전후관계를 단순히 단정 짓기는 어렵다.

(2)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 사례집단 30인의 각 항목 측정치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4-25와 같다.

[표 24]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일반 예상영향요인 간 상관분석결과

		월정기교류자	입주기간	활동시간	기존네트워크규모	창작기여	네트워크의지	공동목표의식	공간활동자율	시간활동자율
월정기교류자	Pearson계수	1	.480**	.100	-.058	.346	.284	.087	-.239	-.286
	유의확률(양쪽)		.007	.600	.762	.061	.129	.647	.203	.126
	N	30	30	30	30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표 25]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공간이용관련 항목 간 상관분석결과

		월정기교류자	총이용공간수	재료조달	창작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식사 및 다과	일상 품구 매	여가 및 취미	유희 및 놀이	교류공간 이용
월정기교류자	Pearson 계수	1	.641**	.455*	.000	.515**	.703**	.230	.026	-.017	.033	.343
	유의확률(양쪽)		.000	.012	1.000	.004	.000	.221	.894	.929	.862	.064
	N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수준변수로 활용된 월 정기 교류자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일반 예상요인 항목은 문래창작촌과 마찬가지로 입주기간이 유일하였다. 공간이용차원의 항목들 중에서는 역시 문래창작촌과 마찬가지로 총 이용공간 수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재료조달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 전시 및 공연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의 수, 예술품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의 수 항목들과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당창작아케이드 내에 조성된 5개 공동사용공간의 이용실적은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수준변수와의 상관성이 유의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6과 같다.

[표 26]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의 월 정기 교류자 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항목들 간 상관분석결과

		월정기교류자	입주기간	재료조달	전시및공연	예술품판매	총이용공간수
월정기교류자	Pearson상관계수	1	.480**	.455*	.515**	.703**	.641**
	유의확률(양쪽)		.007	.012	.004	.000	.000
	N	30	30	30	30	30	30
입주기간	Pearson상관계수	.480**	1	.464**	.587**	.291	.370*
	유의확률(양쪽)	.007		.010	.001	.119	.044
	N	30	30	30	30	30	30
재료조달	Pearson상관계수	.455*	.464**	1	.141	.168	.556**
	유의확률(양쪽)	.012	.010		.456	.375	.001
	N	30	30	30	30	30	30
전시및공연	Pearson상관계수	.515**	.587**	.141	1	.773**	.650**
	유의확률(양쪽)	.004	.001	.456	.000	.000	.000
	N	30	30	30	30	30	30
예술품판매	Pearson상관계수	.703**	.291	.168	.773**	1	.635**
	유의확률(양쪽)	.000	.119	.375	.000	.000	.000
	N	30	30	30	30	30	30
총이용공간수	Pearson상관계수	.641**	.370*	.556**	.650**	.635**	1
	유의확률(양쪽)	.000	.044	.001	.000	.000	.000
	N	30	30	30	30	30	30

**0.01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입주기간 항목은 상기한 공간이용차원의 일부 항목들과도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입주기간이 긴 입주예술가일 수록 총 이용공간의 수, 재료조달·전시 및 공연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가 많다. 그러나 입주기간 항목은 전시 및 공연·예술품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의 수, 그리고 총 이용공간의 수 항목보다 네트워크 수준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사례별 상관분석 결과의 종합 및 해석

[표 27]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변수와의 상관성이 유의한 항목들

구분	항목명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변수와의 Pearson 상관계수	
		문래창작촌	신당창작아케이드
양 사례에서 상관성 유의	입주기간	.614	.480
	총 이용공간의 수	.528	.641
한 사례에서 상관성 유의	식사 및 다과	.611	유의하지 않음
	교류공간 이용정도	.680	
	재료조달	유의하지 않음	.455
	전시 및 공연		.515
예술품 판매	.703		

사례별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양 사례 모두 입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총 이용공간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 사례 모두 입주기간 항목과 총 이용공간의 수 항목간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기간, 공간이용 범위, 네트워크 수준이 각각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한편, 문래창작촌에서는 이용공간 중에서도 식사 및 다과, 즉 일상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일상활동 보다는 재료조달,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등 창작활동과 관련한 이용공간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다. 또한 문래창작촌에서는 교류공간 7개소의 이용실적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교류공간 5개소의 이용실적과 네트워크 수준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통해 문래창작촌에서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은 일상적인

활동 및 그에 따른 공간이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은 공동 창작프로젝트 등의 공식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이끌어 낸다.

만약 위와 같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문래창작촌의 네트워크 수준은 입주예술가들의 일상활동 수용을 위한 공간적 조건과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교류공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결과만으로는 네트워크 수준과 각 영향요인의 전후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 즉 문래창작촌의 경우만을 놓고 고려해 볼 때, 네트워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식사 및 다과를 위한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또 교류공간 이용정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해당 공간적 조건과 그에 따라 유발되는 활동들의 중첩이 개인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전후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사례의 공간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의 전후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사례별 입주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결과를 검토한다.

4.4.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현황과 공간적 조건에 대한 인식

4.4.1. 인터뷰 조사의 틀

인터뷰 조사는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10명,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8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직접질문 및 설명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네트워크 형성경위 및 현황에 대한 질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창작클러스터 내에서 현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게

된 주된 배경과 그에 따른 현황을 자유롭게 설명했다. 이때 조사자는 공간적 조건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진술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는, 각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이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 창작클러스터 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표 28] 사례별 인터뷰대상자들의 속성

사례구분	대상자 구분	성별	연령(세)	입주기간(개월)	활동유형
문래창작촌	A	남	37	24	영상
	B	여	28	3	시나리오
	C	여	37	36	양초공예
	D	여	33	39	그래픽디자인
	E	여	34	36	목공예
	F	여	32	4	문화/전시기획
	G	남	28	20	설치미술
	H	남	38	86	일러스트
	I	남	38	84	그래픽디자인
	J	여	41	13	문화/전시기획
신당창작아케이드	A	여	27	15	금속공예
	B	여	30	36	그래픽디자인
	C	남	42	28	영상
	D	여	32	36	도예
	E	여	35	32	시각예술
	F	여	28	3	일러스트
	G	여	31	3	금속공예
	H	여	28	33	섬유공예

4.4.2. 인터뷰 조사의 결과

(1)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인터뷰 조사결과

문래창작촌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네트워크 형성경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도 또는 계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활동 상의 자연스러운 경위로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나게 된다는 진술과 자신의 기대치에 준하는 네트워크 수준을 구축하고 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있으면 저절로 교류가 생겨난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소개받고 또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문래창작촌 A작가)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많아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영감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교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온지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 20여분이랑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명을 알게 되어 그 한명과 있다 보면, 그분이 아는 사람이 우연히 지나치다가 인사하게 되어 계속 서로 소개하고 알게 되는 방식으로 인맥이 확대된다.” (문래창작촌 B작가)

“누가 새로 들어오면 월동준비라던가, 자재조달이라던가 정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난다. 그러다가 환경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오가게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들로 이어지는 것 같다.” (문래창작촌 C작가)

그 중 질문내용에 직접적인 관련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형성경위와 공간적 조건 및 공간이용을 관련하여 진술한 경우는 10명 중 6명에 이르고 있다. 진술내용은 크게 작업실들이 각 골목에 조밀하게 밀집된 공간적 조건에 관한 진술과, 대안공간 즉 교류공간에 대한 진술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나는 특별히 내 작업실을 개방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곳은 공간끼리 붙어있고 골목골목 공유하고 있는 외부공간이 많아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한번 인사하게 되면 공간적인 가까움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이어지게 된다.” (문래창작촌 D작가)

“특별히 기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때때로 골목 사이 공간 마다 짹 짹 솔자리가 열린다. 이런 자리에는 주변 작가들 뿐 아니라, 공장사람들,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 그래서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부분 친하

게 지내고 있다. 사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문래창작촌 E작가)

“이곳에 온지는 네달정도 되었는데, 여타 이유로 ‘정다방’, ‘내방’, ‘문’ 등을 거의 매일매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중 특별히 가까워진 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다.” (문래창작촌 F작가)

“문래창작촌에는 대안공간들이 활성화되어있다. 이런 공간들이 작가들끼리 만나고 또 가까워지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 (문래창작촌 B작가)

두 번째 질문, 즉 문래창작촌의 공간적 조건과 개인의 네트워크 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응답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을 근거로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제공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교류공간들이 작가들을 유인하여 네트워크를 촉진시킨다는 내용과, 각기 작업실이 근접해 있고 다양한 일상활동들이 일어나는 ‘마을’ 또는 ‘촌’의 개념이 정착되어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내부 구성원들과 빈번히 접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공간적인 조건들은, 별도의 연유로 한번 안면을 인식한 사이끼리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발해 교류관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 진다.

“작업실이 서로 붙어있고 함께 쓰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가 많다.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매번 얼굴을 보기 때문에 교류를 한다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대안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 작가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문래동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잠은 자기 집에서 자더라도 하루 중 많은 활동들을 문래동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저것 작가들이 기획해서 만든 행사들도 많은데, 그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것도, 이런저런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참석을 권유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문래창작촌 C작가)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작가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작가들끼리의 교류활동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공동행사 있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만 한다면, 그 행사를 통한 만남은 즉석만남에 그치겠지만, 이곳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 자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간적인 조건이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문래창작촌 A작가)

“문래창작촌에서는 별다른 약속이 없는데도 누군가와 만났다가 헤어지면 “내일 봐~”라고 인사한다. 이곳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촌’이라는 특성상 교류를 피하기 어렵고 끈을 이어 갈 수 밖에 없다. 진짜 ‘촌’ 사람들이 된 것 같다.” (문래창작촌 D작가)

“문래창작촌의 경우, 먹고 마시고 쉬고 대화하는 것 전부가 모두 창작활동인 곳이다. 한 마을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을 사람들이다. 서로서로 마주치고 하다보면 늘 대화상대를 만나게 된다.” (문래창작촌 G작가)

한편, 공간적 조건과 네트워크 형성과정의 관련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 중 일부는 대안공간의 형태로 조성된 각 교류공간들이 입주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각 교류공간의 운영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 문래창작촌 내의 입주예술가 간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간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교류공간들을 통해서 이곳 작가들끼리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네트워크로 인하여 지역생태계가 구축되며 지역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운영을 하기 힘들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어 운영하고 있다” (대안공간 ‘문’ 운영자 H작가)

“나는 본래 문래동 태생으로 이주한 작가가 아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예술작가들이 많이 늘어나 무슨 예술촌으로 불리고 하는 것이 신기했다. 반면 작가분

들끼리 같이 모이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 아쉬웠는데,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동창, 미술가, 와인전문가 3사람이 함께 출자하여 ‘정다방’을 설립했다. 이 공간은 각자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수익이 남진 않지만, 마이너스도 아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따져보면 손해보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도 하고 있고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으며 무료로 일하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각자가 긍정적인 무언가를 이 공간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대안공간 ‘정다방’ 운영자 I작가)

“처음 본래 친분이 있던 문래동 작가들에 의해 문래동을 소개 받았다. 작가들이 많고 활동이 많은데 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의견이 공유되는 장소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작가들이 교류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기위해 솜씨를 만들었다. 숨어있는 작가를 외부에 소개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개인적 2인전 등으로 전시를 한다. 한편, 상시 커피, 맥주 등의 마실거리와 간단한 다과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전시기회는 열려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곳을 지향하려 한다.” (복합문화전시공간 ‘솜씨’ 운영자 J작가)

(2)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대상 인터뷰조사 결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입주예술가들은 자신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하여 주로, 사무실 주관의 단체행사 등 공식적 모임을 통해 최초로 통성명을 하게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순 안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경우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경향이다. 즉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입주 예술가들은 대부분이 서로의 안면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류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기 위하여 여는, 특별한 필요에 따른 접근, 별도의 공식 행사 또는 프로젝트 등의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입주 전부터 당연히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현재 네다섯 분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 현재도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길 희망한다. 처음에는 MT와 간담회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게 되지만, 더욱 친해지게 되려면 각자 어떤 필요에 의해 직접 찾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 A작가)

“사무실에서 기수끼리 교외지역으로 엠티를 보내주기 때문에 서로 얼굴이랑 이름은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 주관으로 각자 활동내용 프레젠테이션하고 사무실 운영상황 전달받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작가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하면 그때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은 있다. 나도 그런식으로 몇 분이랑 가까워지게 되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B작가)

“작가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의 작품을 보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좋다. 개인적으로는 3년 이상 이곳에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는 작가는 두 분 정도이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은 다 안다. 새로운 기수가 시작될 때 마다 MT식으로 단체행사를 재단에서 주관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방으로 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당창작아케이드 C작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한다가 보다는 그냥 내 작업실이 여기에 있는 느낌이다. 한 일곱분 정도랑 가끔 밥 같이 먹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다. 그분들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일적으로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 나이와 하는 일이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진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마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 와서 보다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그 일곱분 끼리 서로가 다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아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D작가)

“서로 다른 장르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또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는 필요하다. 같이 신당동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 서너명과는 정기적으로 회의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편이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공고를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충 누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기 때문에 한명한명 찾아가 이야기 나누면서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E작가)

인터뷰 대상이었던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8명 중에서는, 문래창작촌과 달리, 질문 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한, 자신의 네트워크 형성경위를 공간적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없었다.

두 번째 질문, 즉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공간적 조건과 개인의 네트워크 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을 진술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의 교류활동은 주로 각 작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공간으로 조성된 공동사용공간들은 교류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각기 특정 기능구현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문래창작촌과는 달리 개인작업 외에 식사·다과 등을 위해 주변지역의 외부공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밀집해 있는 시설이지 공간적인 조건 때문에 작가들끼리 자연스럽게 교류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아닌 것 같다.” (신당창작아케이드 F작가)

“작가들끼리의 교류를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잘 이용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각자의 작업실에서 모인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거나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 할 일은 대부분 내 작업실에서 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 G작가)

“공동휴게실이나 공동작업실 같은 공간들을 때때로 쓰긴 하는데 주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기위해 쓰는 것이지 다른 작가들과 친목도모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유리로 다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신당창작아케이드 D작가)

“특별히 작가들과 만나야 할 일이 있을땐 작업실로 부르거나 내가 간다. 공동사용공간은 이용할 일이 별로 없다. 작업을 하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잠을 자든 다 내 작업실에서 한다. 신당동은 뭐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찾으려면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다. 식사도 안에서 떼우는 경우가 많다.” (신당창작아케이드 C작가)

“공동휴게실, 공동작업장 등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곤 큰 관련이 없다. 작가들끼리 주로 만나는 공간은 각자의 작업실이다. 활동하는 시간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마주칠 일도 없다.” (신당창작아케이드 H작가)

(3) 각 사례별 인터뷰조사 결과의 비교 및 해석

두 사례간 인터뷰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문래창작촌은 새로운 교류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를 주로 제 3자의 소개 및 우연한 만남 등 자연스런 계기에 따른 친분형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공식 행사를 통해 대부분의 입주자간 안면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필요에 따른 접근이나 공식 프로그램에 따른 계기가 없는 이상 교류가 촉진하는 매개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9] 사례별 인터뷰조사 응답자들의 주요 언급 비교

	문래창작촌 (총 10명)		신당창작아케이드 (총 8명)			
	관련 언급내용	빈도	관련 언급내용	빈도		
주요 네트워크 형성계기	제 3자의 소개 및 우연한 계기의 만남	7	공식적 행사 참여로 안면인식, 이후 개인적 필요에 따른 접근	5		
	공식적 행사 참여로 안면인식, 이후 빈번한 접촉에 따른 친분	2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	2		
	기타	1	기타	1		
공간적 조건과 네트워 크와의 관련성 언급	직접 질문 이전	마을화된 조밀한 공간 구성과 그에 따른 빈번한 접촉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3	언급된 바 없음		
		교류공간의 이용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5			
		위 두 사항을 모두 언급	2			
	직접 질문 이후	마을화된 조밀한 공간 구성과 그에 따른 빈번한 접촉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4	작가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필요시 교류가 가능	1	
		교류공간의 이용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8	관련 성 없음	교류활동을 하는 장소는 작업실에 국한 됨 공동사용공간과 네트워크 형성은 관련이 없 음	3 4
		위 두 사항을 모두 언급	2	없음	위 두 사항을 모두 언급	3

주요 네트워크 형성계기의 언급 시, 문래창작촌에서는 공간적 조건에 관한 직접적 질문 이전에도 전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조밀한 공간구성에 따른 빈번한 접촉, 교류공간 이용에 따른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등 공간적 조건에 관한 계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공간적 조건과 관련한 계기를 네트워크 형성 경위로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각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 조건과 네트워크 형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문래창작촌 응답자들은 전원 관련성을 공감하고 있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 응답자들은 예술가들이 밀집해 있다는 조건 자체가 필요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구조라는 일부 응답 외에는 구체적인 공간적 조건과 실제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성이 있다는 명제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의 교류활동은 주로 각 작업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일상활동을 위한 공간범위가 좁아 상호간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공동사용공간으로 조성된 공간들과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5장. 결론

5.1. 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공간적인 조건이 실제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 향후 창작클러스터의 신규 계획 및 운영 시 네트워크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자생적 · 계획적 형성경위의 차이에 따라 공간적 조건이 상이한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했고,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 및 예상영향요인 변수 측정결과의 비교, 사례별 네트워크 수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향요인의 도출, 각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경위 및 공간적 조건과의 관련성 인식 비교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문래창작촌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집단 간 네트워크 수준 및 예상영향요인 변수 차이의 유의미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내·외부 네트워크 규모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입주 이후의 신규 네트워크의 규모는 문래창작촌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은 입주 이전 네트워크 규모에 비해 1.02배에 달하는 네트워크 규모를 입주 이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들은 기존 네트워크 규모 대비 신규 네트워크 규모가 0.32배에 그치고 있다. 이를 월 1회 이상 교류하는 입주예술가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문래창작촌이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4.1배 가량 높은 평균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네트워크 수준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차이와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속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기존 내부 네트워크의 규모 등을 비롯한 기타 예상영향요인 변수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의 차이가, 개인의 의식 · 성향 · 조건이 상이한 집단군으로 구분됨에 따른 결과라고 보

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공간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활동유형에서 문래창작촌의 연평균활동일수가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중 재료조달, 창작품 판매, 식사 및 다과, 일상용품구매, 유희 및 음주의 활동유형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사 및 다과, 유희 및 음주에 해당하는 활동유형에서는 연평균활동일수, 이용공간의 수, 해당 활동조건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각 창작클러스터 내의 교류공간 이용정도에 있어서도 문래창작촌의 경우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의 공간적 활동범위가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비해 다양하며, 특히 일상활동의 비중과 교류공간 활성화 정도가 높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각 사례별로 네트워크 수준과 각 예상영향요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 사례 모두 입주기간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의지, 활동자율성 등의 일반 예상영향요인 변수들은 실제 네트워크 수준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이용차원의 변수를 살펴보면 양 사례 모두 총 이용공간의 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래창작촌은 식사 및 다과 등 일상활동 관련 공간이용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재료조달, 전시 및 공연, 예술품 판매 등 창작활동과 관련한 공간이용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확인된다. 한편, 양 사례에 조성된 교류공간의 이용정도와 네트워크 수준과의 관련성은 문래창작촌의 경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나,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양 사례간 공간적 조건 및 공간이용현황의 차이가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이끌어 낸다. 또한 이는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경위 및 공간적 조건 인식에 관한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문래창작촌은 공간적 조건에 관한 직접적 질문 이전에도 전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조밀한 공간구성에 따른 빈번한 접촉, 교류공간 이용에 따른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등 공간적 조건에 따른 경위를 주요 네트워크 형성과정 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조건과 네트워크 형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문래창작촌 응답자들은 전원 관련성을 공감하고 있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공식 행사 등을 입주자간 안면을 인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른 접근이나 공식 프로그램에 따른 계기가 없는 이상 교류가 촉진하는 매개가 부재하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이 밀집해 있다는 조건 자체가 필요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구조라는 일부 응답 외에는 구체적인 공간적 조건과 실제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성이 있다는 명제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해보면, 문래창작촌은 입주예술가들의 식사 및 다과 등 각종 일상적 활동이 빈번하게 중첩되고, 각 교류공간의 이용비율이 높다는 공간적 조건을 취하고 있어 별도 연유로 안면을 인식한 사이끼리의 지속적인 접촉기회가 수반되어 친분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터뷰 응답자들 중 일부는 빈번한 접촉에 따라 형성된 네트워크가 각종 지역사회 대상의 예술활동, 동호회 활동 등, 단체활동의 참여로 이어진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반대로 주로 운영사무실 주관의 각종 단체활동의 참여가 실제 네트워크 형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호간 안면을 인식하고 있는 조건은 마련되지만, 그 이후의 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입주예술가들의 개별적 접근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촉진이 미흡한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상관분석 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네트워크 수준은 일상활동이 아닌 창작활동과 관련한 공간이용이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공동프로젝트 등 별도 프로그램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활동은 주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교류활동이 제 3자와의 교류관계 형성으로 연계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5.1.2. 향후 창작클러스터 조성시의 시사점

창작클러스터 내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다수 선행연구에 의해 내부 입주자들의 창작기능 향상 뿐 아니라, 해당 창작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순기능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본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인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자생적인 창작클러스터인 문래창작촌 내 입주예술가들에 비해 입주 이후 신규 교류자의 수, 월·주 정기 교류자의 수, 월 평균 교류횟수 등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 평가를 위해 측정된 모든 변수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례간 유의한 차이점은 네트워크 활동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문래창작촌 입주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경위는 주로 자생적이며 신규 교류관계의 지속은 지역 사회 애착심의 공유, 각종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로 연계되어 각종 지역 사회 대상 예술활동의 발현으로 귀결되는 양상이 관찰 및 인터뷰 조사결과 드러난다. 반면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들은 입주 예술가들 상호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이전 시점부터, 공공 주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대상 공공예술활동에 참여되도록 유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주도 정책은 입주예술가들 간 국지적 교류망의 형성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기여효과의 지속성 또한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관측된다.

두 사례의 네트워크 수준 및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과의 연계정도 차이를 감안할 때,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시에는 입주 예술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고려가 선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이아름(2010), 최준 외 1인(2009) 등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창작클러스터 내 자생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해당 사례가 지닌 공간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들은 각종 일상활동을 다양한 공간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창작클러스터를 ‘마을’ 또는 ‘촌’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인 조건과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이 실제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성이 있음이 상관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입

주예술가들의 인터뷰 조사 시에도 직접 언급되고 있다. 즉 특정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적인 조건이 일회성의 연유로 서로를 인식하는 관계 간에 지속적인 접촉이 유발하여 자생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창작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시에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공간계획의 고려대상에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시 공간계획의 고려사항은 창작활동 수용을 위한 작업실 및 편의 공간 제공 등 시설차원의 기능구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계획적 창작클러스터의 공간조건은 내부 활동을 각 사적공간에서의 창작활동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각종 일상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공간계획 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의 연계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전시 및 공연·예술품판매 등의 창작관련 활동과 더불어 상기한 일상적 활동들이 중첩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교류공간의 조성이 계획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5.1.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주로 MT 및 간담회 주최 또는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유도 등 주로 기획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계획적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야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거시적 방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유형과 분포를 보이는 창작클러스터 사례들 중, 형성경위별 대표사례 두 곳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공간유형·형성경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화가 선행되고, 또한 해당되는 각 창작클러스터 사례들이 추가로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논지가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창작클러스터의 특정 공간적 조건과 그에 따른 공간이

용이 실제 입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규명에 그 유효성이 국한되어 있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해당 공간적 조건과 그에 따른 공간이용현황이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에 대한 질적연구가 수행된다면, 실제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시 적용가능한 구체적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강병주 2009, “창조도시계획의 집행가능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대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2호.
2. 구문모 2005,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4호.
3. 김담비 2010, “서울시 창작공간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김연진 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 형성 연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 김윤환 2008,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세조사 연구용역(문화생태계 관점)”,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6. 김윤환 2009,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과제”, ‘월간 Art’, 2009년 2월호.
7. 김윤환 2009, “서울형 창작공간의 미션과 전략”,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서울문화재단.
8. 김은경 2010, “홍과 정이 넘치는 시장 속 예술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도시문제’, 제45권 제507호.
9. 김인선, 김영실, 서정훈, 최왕돈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 문래동 특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5호.

10. 김현민, 김유미 2009, “도시의 창조적 산업과 인력이 고용경쟁력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회보’, 제18권 제4호.
11. 김홍주 2011, “문래창작촌의 장소성과 창조네트워크 특성”, ‘국토계획’ 제46권 제3호.
12. 김홍주, 박세훈 2012, “창작촌의 예술가 창조네트워크 비교 : 문래창작촌과 또따또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1호.
13. 김희영 2010, “공적 영역에서 예술가의 역할 :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금천예술공간 국제 심포지움 주제발표자료.
14. 라도삼 2007,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생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 라도삼 2011,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6. 라도삼, 김남일, 최홍규, 김수현 2002,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7. 라도삼, 박은실, 오민근, 우윤석 2008,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도시정보’, Vol.317.
18. 문지현 2011, “창조문화클러스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 바람부는연구소 2006, “경기지역 예술가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 바람부는연구소.
20. 박세훈, 김은란, 박경현, 정소양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1. 박신의 2008, “예술가 해외거주 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의 확산과 진화: 창조도시 구도에서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까지”, ‘미술이론과 현장’ 제

6호, 학고재.

22. 박은실 2009, “창조지구 구성과 도심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창조적 도시재생”,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 2, No 1.
23. 백선혜, 라도삼, 노민택 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4. 신성희 2006,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들의 분포특성과 창조적 도시조성 방안의 시사점”, ‘공간과 사회’, 통권 25호.
25. 아라영 2010,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영향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7호.
26.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2011, “나의 아름다운 철공소”, 이매진, 서울.
27. 오민근, 서진영 2010, “서울 문화를 품다”, 생각의나무, 서울.
28. 오민근 2005, “문화를 통한 도시활성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17집.
29. 오성희 2002, “아트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 오희택 2011, “문래동의 장소성변화와 문화매개 도시재생 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이경희 2011, “창작스튜디오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2. 이명옥 2004, “한국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발전 모델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이순성 2010,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한중일 비교연구”, 서울시

- 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4. 이아름 2011, “공동창작공간의 클러스터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5. 이웃상회 2012, “신당생활사박물관 브로슈어”, 서울문화재단, 서울.
 36. 이정옥 1996,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제27집.
 37. 이주호 2012, “욕망에 충실하고 두려움 없이 말하라, 그게 어렵거든 이사람이 타준 커피를 마셔라”, ‘문래동네’, Vol. 011, pp.3-4. 수록 인터뷰기사.
 38.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1호.
 39.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0. 장윤정, 이승일 2009, “서울의 창조산업 분포특성과 도시상업활력의 공간회귀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6호.
 41. 정병순 2007, “서울시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2. 정의홍 2011,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류에 따른 산업별 입지요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3. 정희선 201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제45권, 2호.
 44. 최기조 2010, “창조적 계급과 지역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45. 최은진 2010,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의 실태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와 강릉시의 주거단지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6. 최준, 구영민 2009,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아트팩토리 운동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Vol.20 No.1.
47. 황우자 2006,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8. 허윤선 2006,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9. 홍윤순 2012, “문래창작촌의 혼성적 장소정체성 해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2호.
50. 강홍빈 외 6인 공역 2009, “도시설계-장소만들기의 여섯차원” (Matthew Carmona, et al. 2003, Public Places-Urban Spaces, Elsevier, London.) 대가, 서울.
51. 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공역 2009, “도시와 창조계급” (Florida, Richard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ew York.), 푸른길, 서울.
52.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공역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Gehl, J, 2003, Life between Buildings,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푸른솔, 서울.
53.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Landry, Charles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London.), 해남, 서울.

54. Baptista, R and Swann, P 1998, "Do firms in clusters innovate more?", 'Research Policy' Vol.27.
5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New York.
56. Brass D. J. Galaskiewicz, J & Greve. H. R. 2004, "Taking stock of networks and organizations : A multileve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7 No.6.
57. Evans, Graeme L. and Shaw, Phyllida 2004,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Regeneration in the UK : A Review of Evidenc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London.
58.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New York.
59. Grams, Diane, and Michael Warr 2003, "Leveraging assets: How small budget arts activities benefit neighborhoods", Chicago: Richard H. Driehaus Foundation and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60.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and Great American Cities" Second Edition, Random House, New York.
61. John C, Hesterly, W. S. & Borgatti S. P. 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o 4.
62. Markusen, Ann, and Amanda Johnson 2006, "Artists' centers: Evolution and impact on careers, neighborhoods and economics", With Christina Connelly, Andrea Martinez, Paul Singh, and Galen Treu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Humphrey Institute

of Public Affairs, Project on Regional and Industrial Economics

63. Montgomery, John 2003, "Cultural Quarters as Mechanisms for Urban Regeneration. Part 1 : Conceptualizing Cultural Quarter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col. 19.
64.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Vol 4, No 13.
65. Scott, A.J., 1999, "The cultural economy: geography and the creative field",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21
66. Serifert, S., Stern, J.M and Zaman, M 2005, "Artists and their Social Networks, Metropolitan Philadelphia", 'Dynamics of Culture Working paper#200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67. Schuster, J. Mark 2001, "Ephemera, Temporary Urbanism, And Imaging", 'Imaging the City Continuing Struggles and New Directions', CUPR Books, New Jersey.

부록: 문래창작촌 입주예술가 대상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도시설계연구실입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내 창작물러스터 내 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귀 아티스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응답결과에 대한 개인정보는 일체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조항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어, 학술적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도시설계연구실 석사과정 이승훈

※ 네트워크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알고 지내시는 **모든 예술가들** 중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와 **평균 교류 횟수**를 적어주세요

번호	항목	사람 수 (1-1)	평균교류횟수 (1-2)
A	내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 되어 있는 예술가	() 명	-
B	A 중 문래창작촌에 입주 한 이후 에 알게 된 예술가	() 명	-
C	B 중 현재 문래창작촌에 입주 해 있는 예술가	() 명	년 () 회
D	C 중 나와 평균 월 1회 이상 교류하는 예술가	() 명	월 () 회
E	D 중 나와 평균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예술가	() 명	주 () 회

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평가해주세요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별로 아니 다	보통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내가 작업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지금 알고지내는 문래창작촌 예술가들과의 교류가 계속 지속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현재 문래창작촌에서 다른 곳으로 작업실을 옮긴 예술가들과도 것처럼 교류를 지속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가 나의 창작활동에 도움 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2-3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단히 기술해 주세요

※ 내부 활동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께서 문래창작촌에 **입주하신 기간**을 적어주세요 () 개월
5. 주중, **하루 24시간 중** 평균적으로 문래창작촌에 **계시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 시간

※ 기존 내부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형성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 문래창작촌에 **입주하기 이전**에도 가깝게 알고 지내시는 **문래창작촌 예술가**분들이 계셨었나요?
- ① 없었다 ② () 명 있었다

7.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적 생각 또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항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별로 아니 다	보통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7-1	지금보다 더 많은 문래창작촌 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문래창작촌의 다른 예술가들과 힘을 합쳐야 할 공동의 목표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7-2에서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답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해 주세요

9. 다음 보기 중, 다른 예술가들과의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게 된 **주요 계기**들을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① 지인의 소개	④ 공공 프로그램의 참여	⑦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참여
② 창작활동 상 필요에 따른 접근	⑤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활동 참여	⑧ 기타 ()
③ 별도 목적 없는 우연한 만남	⑥ 예술가들 간의 친목모임 참여	⑨ 기타 ()

(), (), (), (), (), (), (), (), ()

10. 다음 보기 중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 시** 행해지는 **주요 활동**들을 **자주 행해지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① 협업	③ 공동전시	⑤ 단순 친목도모
② 창작 아이디어 교환	④ 각종 단체활동 참여	⑥ 기타 ()

(), (), (), (), (), ()

※ 공간활용의 다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별도로 제시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세요

11. 다음은 문래창작촌 내부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래창작촌 내부**에 다음의 활동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시는 공간**들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양식에 맞추어 기입해 주세요.

활동 분류	세부활동	공간의 수	활용빈도	해당 활동공간이 질·양적으로 충분하나요?						
				매우 불충분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대략 충분	충분	매우 충분
창작 작업	재료조달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작업 (주요 활동)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시 (공연)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예술품 판매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상 활동	식사 및 다과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쇼핑 및 일용품 구매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체육/취미)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흥 (음주 등)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개	년 월 주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문래창작촌 혹은 그 주변에서 협업·친목도모 등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있다면 별도 인쇄도면상에 **번호를 표시**해 주시고, 아래 양식에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예: ① 00텃밭, 00건물 옥상, 공동작업, 주 1회, 주의: 자신 또는 타인의 작업전용공간은 제외)

번호	공간명	세부위치설명	주 용도	나의 이용빈도
①				년 월 주 ()회
②				년 월 주 ()회
③				년 월 주 ()회
④				년 월 주 ()회
⑤				년 월 주 ()회
⑥				년 월 주 ()회
⑦				년 월 주 ()회
⑧				년 월 주 ()회
⑨				년 월 주 ()회
⑩				년 월 주 ()회
⑪				년 월 주 ()회
⑫				년 월 주 ()회
⑬				년 월 주 ()회
⑭				년 월 주 ()회
⑮				년 월 주 ()회

※ 활동자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적 생각 또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보기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별로 아니 다	보통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3-1	나는 문래창작촌에서의 작업활동 시 공간활용상의 제약 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2	나는 문래창작촌에서의 작업활동 시 시간활용상의 제약 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3. 공간 / 시간 활용상의 제약이 **있다면** 각각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귀하께서 참여하셨거나 참여하고 계신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에 관하여 다음 양식에 맞추어 기입
해주세요 (지역사회 대상 예술활동의 예 : 체험공방 프로그램, 골목길 프로젝트, 문래아트페스티벌)

활동명	성격	활동주관	본인의 역할	참여규모	부가설명
	<input type="checkbox"/> 공공미술 <input type="checkbox"/> 개방형 전시/공연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주도적역할 <input type="checkbox"/> 단순참여	()명	
	<input type="checkbox"/> 공공미술 <input type="checkbox"/> 개방형 전시/공연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주도적역할 <input type="checkbox"/> 단순참여	()명	
	<input type="checkbox"/> 공공미술 <input type="checkbox"/> 개방형 전시/공연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주도적역할 <input type="checkbox"/> 단순참여	()명	
	<input type="checkbox"/> 공공미술 <input type="checkbox"/> 개방형 전시/공연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주도적역할 <input type="checkbox"/> 단순참여	()명	
	<input type="checkbox"/> 공공미술 <input type="checkbox"/> 개방형 전시/공연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주도적역할 <input type="checkbox"/> 단순참여	()명	

※ 일반 개인적 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의 **일반 개인적 속성**에 관하여 아래 양식에 맞추어 기입해 주세요

이름	연령	()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 번호	월소득	() 만원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거주지	입주공간 정보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평수 ()평 사용인원 ()명

설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Influences of spaces requirements of Creation Cluster to the network levels of it's artists

- Focused on the cases of Mullae Art village and Sindang Art Arcade

Lee Seung Hoo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0's, self-created creation cluster where the artists have been integrated in specific areas in the city has received attentions as a realized case where self-created value creation of areas through creative integration of artists have occurred. As a result, city governments that advocates a Creative City or Culture City has been executing the establishment of planned creation clusters which intentionally induce the integration of artists in specific areas of the city.

On the other hand, Scott (1999) thinks that core assets of creation cluster are the networks of artists and related positive effects. Accordingly, not only various domestic researchers but also establishment subjects of planned creation clusters emphasize the vitalization of networks of living-in artists in creation clusters in common. In spite of these situations, verification of network levels of domestic planned cluster cases which are currently operating domestically is not sufficient, and discussion results about the improvement plans of network levels in

creation clusters are insufficient as well. Reasons of these situations are thought be that approaches to the factors which give influences to network levels in creation clusters were not sufficient.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which are referable in the procedures of establishing network levels improvement plans of living-in artists in creation clusters; and for this objective, clarification of factors which give influences to network levels in creation clusters and related examination of individual influences is being tried. Among these, the influences of spatial requirements and current utilization conditions of spaces in creation clusters to network levels are studied with priority, which is because creation details of creation clusters have individually different space requirements depending on whether it is self-created or planned.

In order to achieve study objective, expected influence factors were prepared which were mentioned earlier to give influences to the network levels in the creation clusters, and Mullae Art Village was selected as a representing case of self-created creation cluster and Sindang Art Arcade was selected as a planned creation cluster. For empirical studies, 30 targeting study subjects of living-in artists in each case were selected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measure individual network levels and variables of expected influence factors. Through comparison analysis of measured data,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network levels of each case was verified and variables of expected influence factors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Additionally and in order to verify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of current situation of space utilization and network level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in order to identify the contexts of correlations, total of 18 living-in artists in each case were selected and examined with interviews.

Study results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assumption that spatial requirements in relevant cases could give influences to network creation procedures in creation cluster. Living-in artists in Mullae Art Village which have relatively higher network levels live with various common actives in various spaces and transform the new networks in various exchange spaces where the relevant activities are overlapped and the relevant creation cluster is recognized as a concept of 'town' or 'village'.

Additionally,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spatial requirements and related current conditions of space utilization and physical network creation procedures are identified in correlation analysis and interview results.

On the other hand, activities of living-in artists in Sindang Art Arcade show the tendency that their activities are limited to personal activities in their personal spaces and their exchange spaces which could mediate the networks are not sufficient. Accordingly, continuous exchange relationships are identified to be difficult in spite of the conditions that entire living-in artists recognize their existences in living-in artists owing to the public leading network program.

Through study results, the necessity is raised for futur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reation cluster that network vitalization plans should be added in consideration factors for space plans. In details, the suggestion that establishment of space requirements that enable various everyday activities smoothly and connections with neighboring areas and the implication that establishment of open exchange spaces which enable to overlap various everyday activities should be added in the plans.

Current space plans in the procedures of establishment of creation cluster are limited to the standards of construction of facilities to accommodate creation activities. If the derived implication could be developed to detailed space plan methodologies through future in-depth qualitative studies, current concept of planned creation cluster which stays just in the level of facilities is expected to be expanded to the concept of 'Creative Milieu' where self-created interactions between internal members and connections with regional community are required.

**keywords : Creation Cluster, Creative City, Social Network,
Cultural Urban Regeneration**